News p/04

17분 남기고 또 멈춘 우주의 꿈

메트로 2012년 11월 30일 금요일 제2621호

News p/12

흥미 있는 에이즈 예방의 거리

식료품비 절반 외식비 지출

NEWS p/02

170만원값 못하는 유모차

NEWS p/03

Discover in
ABC MART
가격추락
~50%
29,000원
100대
2012 결산세일
ABC마트 결산세일
KakaoTalk
Tel 080 701 7770

Entertainment p/22

소유진 15세 연상 신랑과 찰칵

metro

메트로 2012년 11월 30일 금요일 제2621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9

코리안 특급 박찬호 전격은퇴

<한강공원 반포지구 미니스톱족>

날마다 칼바람 뚫는 '반미니족'

한강공원 반포지구에서 대학생 최명훈씨와 직장인 허위재씨가 달리고 있다. 러너와 라이더들 사이에서 '만남의 장소'로 유명한 한강공원 반포지구 미니스톱 앞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세워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달리기·자전거 마니아들 '새 집선 아지트'로 각광
삼삼오오 모여 밤늦도록 건강 즐기는 열기 후끈
"어떤 옷차림 좋아하나" 스포츠업체도 부쩍 관심

"오늘 밤 8시 반미니 급벙!"

'띠링'하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뜨자 대학생 김영준(24)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달리기 동호회에서 보낸 암호 같은 이 메시지는 '반포 미니스톱 편의점(반미니)에서 만나 한강공원을 달리자'는 뜻. '반미니'는 러너들끼리 통하는 은어다.

김씨는 "한강공원 반포지구 내 미니스톱(편의점)은 각 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곳인 데다 점포 옆에 운동장이 있어 러너와 자전거 라이더들에게 가장 '핫'한 만남의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달리는' 사람들의 열정은 식지 않고 있다. '함께 달리는 것만으로 설렌다'는 러너와 라이더들에게 추위 따위는 문제가 안 된다. 그들에게 달리기는 스포츠라기보다 함께하는 문화이자 놀이다.

러너보다 이동이 자유로운 라이더들로 '반미니' 앞은 밤늦도록 사랑방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서울 끝에서 달려온 자전거족들도 이곳서 잠시 쉬었다 간다. 한강 자전거 동호회 김성식 부회장은 "많은 라이더들이 반포 미니스톱과 여의도, 뚝 주산성에서 쉰다"며 "라이더들의 성지 외도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찾은 반포 미니스톱 앞. 오후 8시가 되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바람막이와 레깅스 차림의 러너들, 헬멧·마스크로 얼굴을 감싼 자전거족들이다. 이들은 둘, 셋씩 짝을 지어 운동을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자전거 파티가 열렸다. 자전거 동호회 상싱 로드 회원들의 뒷풀이 자리. 직장인 한동관(33)씨는 "가끔 라이딩을 마치고 '반미니'에서 간단히게 야참을 즐긴다"며 "같은 취미를 가진 시람들과 함께하는 재미가 생활에 큰 원력이 된다"고 말했다.

◆"제대로 갖춰 입고 달리자" 새로운 문화 정착

한겨울에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이들로 스포츠 브랜드들은 함박웃음이다. 젊고 개성이 강한 '반미니족'들이 복장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다. 러닝화보다 좀 너 빨리 달릴 수 있게 돕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나이키코리아 러닝브랜드 매니저 최수인 차장은 "최근 기능성 의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 올해 의류 매출이 지난해보다 40%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겨울철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에도 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보호기능을 더한 러닝 라인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반사체를 붙여 어둠 속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한 나이키 '실드 러닝 컬렉션', 보온 소재 안감을 사용한 아디다스 '클라이마웜 레볼루션 러닝화' 등이 대표적이다.

운동에 관심 없던 젊은층까지 '달리기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나이키+', '아디다스 마이코치', '로드 바이크 시어들'. '자전거 GPS 속도계'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달린 거리·속도, 에너지 소비량을 바로 측정할 수 있어, 지루한 러닝과 라이딩이 재밌는 '게임'이 된다. 자신의 기록을 친구들과 비교할 수 있어 은근한 경쟁심까지 유발한다.

5km~10km를 달리는 캐주얼한 러닝 대회가 많아진 것도 '반미니족'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최근 러닝대회는 콘서트나 파티 등과 접목한 20~30대의 '축제'가 되가는 모양새다. 아디다스 브랜드마케터 강형근 상무는 "최근 열린 부산 레이스 참가자 중 20대가 80% 가량을 차지했다"며 "특히 제대로 복장을 갖춰 입은 러너들이 늘어난 것을 보고 러닝이 또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내년 직장인 축복의 해 **빨간날** 모두 116일

징검다리 연휴도 4번 '환호'

내년 달력을 한장 한장 넘기는 직장인의 손길이 경쾌하겠다.

계사년 뱀띠 해인 2013년의 쉬는 날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116일이다. 올해, 지난해와 똑같고 2008년(115일), 2009년(110일), 2010년(112일)과 비슷한 수치다.

하지만 4번의 징검다리 휴일과 7번의 공휴일을 알차게 활용하면 뱀 몸통처럼 기다란 연휴를 만끽할 수 있다.

먼저 신정(1월 1일)이 화요일이라 전날 연차를 신청하면 나흘 간의 연말연시 휴가를 보내게 된다.

삼일절(3월 1일)과 석가탄신일(5월 17일)은 금요일이고 추석 연휴(9월 18~20일)도 금요일에 끝나 주말을 포함한 여유를 즐기게 된다.

특히 추석 연휴 전 16~17일(월, 화) 휴가를 내면 최대 9일의 장기 바캉스를 누린다.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이 모두 목요일이라 금요일을 잘 활용하면 4일 연속으로 쉴 수 있다.

한글날 스티커 붙이요 28일 서울 충무로 한 인쇄업체에서 직원들이 한글날이 휴일로 인쇄된 2013년도 달력에 한글문화연대에서 제작한 한글날 공휴일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정부가 22년 만에 내년부터 한글날(10월 9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로 하면서 근무 일표가 하나 더 늘었다.

직장인 이수빈(25)씨는 "설 연휴(2월 9~11일)가 토·일·월요일이고 어린이날(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 아쉽다"며 "다행히 빨간날이 많아 팍팍한 직장생활에 단비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희기자 unique@

<지난해 외식비 비중 46.6%>

우리집 식료품비 절반 '외식'에 쓴다

맞벌이 증가로 '나가 먹거나 사서 먹거나' 두배 껑충

8만원짜리 휴대폰 이젠 편의점서 구입 29일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소공독캐에서 한 시민이 8만원짜리 초저가 휴대폰 세컨드(2nd)를 살펴보고 있다. 이 휴대폰은 미리 요금을 충전한 후 사용하는 선불요금제 휴대전화기다. /뉴시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에서 만들어 먹기보다는 밖에서 사서 먹는 경향이 높아졌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9일 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자료를 보면 가계 식료품비 지출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까지 20% 수준에서 2003년 44%에서 2007년 45.2%, 지난해 46.6%까지 높아졌다.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가공식품의 비중도 2003년 23.6%에서 지난해 25.4%로 높아졌다. 반면에 육류, 생선, 채소 등의 신선식품 비중은 같은 기간 32.4%에서 28%로 크게 낮아졌다.

농경연은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이 확대되면서 복잡한 조리가 필요한 신선식품 구매가 줄고, 외식비나 가공식품 구매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계층별 식품 소비를 보면 지난해 상위 40%의 월평균 식품비 지출은 81만9000원으로, 하위 40%(46만2000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식품비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데는 외식비의 빈부 격차 영향이 컸다. 상위 40%의 외식비는 한 달에 40만6000원에 달했지만 하위 40%는 17만8000원에 불과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엥겔지수가 1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엥겔지수란 가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가계의 생활 형편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다. 후진국일수록 엥겔지수가 높다.

최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의 명목 소비지출은 32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7% 늘었다. 같은 기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은 44조원으로 6.3% 늘었다. 계산하면 엥겔지수는 13.6%다. 2000년 하반기 14.0% 이후 최고치다. 엥겔지수는 1970~80년대 30~40%를 넘나들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0% 아래로 낮아졌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후 오름세로 돌아섰다. 2008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6개월간 오름세였다.

/임지영기자 ljy@metroseoul.co.kr

비상대피용 소형마스크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을 찾은 청소년들이 비상대피용 소형마스크를 사용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학력 미달학생 2.3% 강남·강북간 격차 줄어

기초학력 미달 초·중·고생이 4년 연속 감소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 평균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아진 2.3%로 집계됐다고 29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평가가 전수조사로 바뀐 첫해인 2008년 기초학력 미달률 7.2%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다.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6월 26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 학생 172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서울 강남·북간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4년 전 5.5% 포인트에서 올해 2.1%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시·도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충북과 울산이 각각 0.8%와 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결과 자료는 30일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공개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국제결혼 40% 재혼

국제결혼의 약 40%가 재혼이며 50대 이상 신랑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이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한 국민 3만2916명 중 과거 혼인경력이 있는 사람은 1만2816명(38.9%)이었다.

이 가운데 재혼이 1만22명(30.4%)이었으며 삼혼이 2292명(7.0%), 사혼 398명(1.2%), 오혼 이상은 104명(0.3%)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혼은 2만100명으로 61.1%를 차지했다.

나이별로는 35세부터 45세까지가 72.1%였고, 50대 이상은 19.8%로 집계됐다. /김용기기자 @

한상대 총장 '신임' 묻기위해 사표제출

오늘 검찰 개혁안 발표후 사퇴 　대통령 수리여부 관심

얼굴 가린 성주문 검사 여성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전 모 검사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한상대(53·사법연수원 13기)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2시 검찰 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사표를 제출한다.

대검 대변인실은 29일 "한 총장이 개혁안 발표 후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뇌물 비리와 향응, 성추문 국민 기만 등으로 고개를 떨궜던 검찰이 사상 초유의 조직 붕괴와 내분 사태를 겪게 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 최고 수뇌의 공석 부담이 만만치 않아 사표가 수리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실적으로 장차 임명상 인사청문회 등을 개최하기에는 무리가 때문이다.

전날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총장실을 찾아간 최재경(50·연수원 17기) 대검 중수부장은 자신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한 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정면 충돌했다.

◆"너희들도 같이 사퇴" 한때 고성 오가기도

한 총장은 29일 대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의 용퇴 요구에 대해서도 "너희들도 같이 나가라"며 거부의 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 총장이 마련한 개혁안에는 중수부 폐지, 부패범죄 특수본 설치, 권한 분산 및 직접 수사기능 축소, 심할권 견제기능 강화, 사건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내부적으로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창설 이후 최악의 위기에 몰린 검찰의 개혁이 제18대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자정능력이 없다고 보고 중수부 폐지,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포함해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동호기자 eleven@

포스터 붙이기 연습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20일 앞두고 29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통령 후보 포스터를 벽에 붙이는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마흔살도 순경 시험 볼수있다

공채 상한연령 30→40세

경찰 순경 공채와 간부 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이 현재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경찰청은 이같이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순경 공채의 응시 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30세가 넘으면 순경 등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획일적으로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시험과목도 고교 교과서 확대

순경 공채시험 과목도 고교 졸업자들의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일부 조정됐다.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준기자 sdeson@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28>

글·그림 박상률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 사망

"남자는 권태를 느끼기 때문에 결혼하고 여자는 호기심 때문에 결혼한다. 그리고 양쪽이 모두 실망한다."

19세기의 마지막 해인 1900년 11월 30일 오스카 와일드가 선부의 친구 몇 숙접 주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 시인은 뇌막염. 와일드는 17세 때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그리스어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옥스퍼드 대학 마그달렌 칼리지 졸업. 보들레르 등의 저작에도 통달할 정도로 교양도 높았다. 시대를 풍미했던 유미주의를 풍미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1891년 알프레드 더글러스 경과 만나 영국의 제기시된 동성애 혐의에 맞고, 결국 감옥에 갔다. 출옥 후의 처량하고 사망이 그의 생명을 갉아 먹었던 것이다.

<벤츠 유모차'로 불리는 수입 유모차>

170만원 스토케 망신

오르빗 등 고가 수입품들 품질평가서 미흡 판정

'벤츠 유모차'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고가에 팔리는 노르웨이산 스토케 '익스플로리'(169만원)를 비롯해 미국산 '오르빗 G2'(145만원) 유모차가 신통치 않은 품질 평가 성적표를 받았다.

소비자시민모임이 29일 국제소비자테스트기구(ICRT)가 영국·홍콩·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유모차 품질 테스트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두 제품은 6개 등급 가운데 4번째인 '미흡' 등급에 속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할 때 스토케 익스플로리는 56점, 오르빗 G2는 51점에 머물렀다.

구매할 가치 있음 등급을 받은 제품은 이탈리아산 '잉글레시나 트립'(70점·36만9000원)과 영국산 맥클라렌 테크노 'XLR 2012'(73점·76만5000원)였다.

국산 제품의 품질은 엇갈렸다. 리안 스핀 2012(69만9000원)가 만족(63점) 등급을 받은 반면 '압소바 시그니처 오가닉'(59만5000원)은 미흡(51점) 등급에 그쳤다.

미국산 그라코 시티 라이드 R(49점·29만9000원)과 일본산 콤비 미라클 턴 프리미어(46점·28만원)는 조사 대상 제품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선효숙기자 hsjoon@metroseoul.co.kr

진짜 레이싱 느낌 그대로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 창업 대전 행사 한 여성 관람객이 실제 레이싱의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익스트림 시뮬레이션'을 체험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액을 물로 착각 건설노동자 셋 중태 컵라면 등 끓여먹어

부동액을 물로 착각해 마신 근로자 3명이 중태에 빠졌다.

충북경찰청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께 제천시 신월동 세명대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박모(48)씨 등 근로자 7명이 커피와 컵라면 등을 끓여 먹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페트병에 담겨 있던 부동액을 물로 착각해 커피와 컵라면을 끓여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혈액 검사 등을 통해 발병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쓰러진 근로자 7명 가운데 커피만 마신 근로자들은 상태가 경미하지만 커피와 컵라면을 함께 먹은 3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겨울철 공사현장에서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을 때 쓰이는 물이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사용한다.

무색무취의 부동액은 그냥 마실 경우 배설될 수 있으나 끓이면 인체에 흡수돼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킨다. /장윤희기자 unique@

또 꺾인 우주의 꿈… 해 넘기나

나로호 발사 또 실패

16분전 부품 이상 발견 올해안 재발사 힘들듯

우리나라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또다시 발사가 취소되면서 연내 발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가 예정됐던 나로호가 예정 시각을 16분 52초 남겨놓고 상단부 전자부품의 문제가 발견되면서 발사가 취소됐다.

조율래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이날 발사 준비 중단 직후 발사통제동에서 "발사체 상단부 추력방향제어기 점검 과정에서 일부 전기신호의 이상 신호가 감지돼 발사 준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발사 취소 원인이 부품의 문제로 나타나면서 국제기구에 통보한 발사 예정 기한인 다음달 5일 이전에 재발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연내 발사 추진은 물 건너가는 셈이다.

29일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프레스센터에서 이주호(왼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김승조 항공우주연구원장과 함께 나로호 발사 취소 관련 브리핑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밀 조사에 걸리는 시간과 나로호를 다시 발사조립동으로 옮긴 뒤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기한을 지킬 수 없다. 주입된 연료를 빼고 다시 채우는 데만도 2~3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날 나로호는 오후 4시 발사가 확정되며 오후 1시58분부터 산화제와 연료, 헬륨가스 주입 등이 시작돼 온 국민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하지만 자동 카운트다운 돌입 2분을 남겨 놓은 오후 3시43분께 문제가 발견되면서 발사 준비가 중단됐고, 결국 오후 4시8분께 발사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항공우주연구원 측은 "엄격한 점검과 이상 현상에 대한 개선·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향후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로호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0년 6월 두 차례 발사됐으나 모두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3차 발사를 시도했으나 연료 주입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연기됐었다.

29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나로호 발사 성공 기원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발사 실패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동호기자 elevon@metroseoul.co.kr

Welli Hilli
Welli Hilli

선거벽보 오늘부터 부착 고의 훼손하면 엄중조치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벽보가 30일부터 전국 8만8012곳 담벼락에 일제히 게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후보자 사진과 경력·학력 등 기본 정보가 담긴 선거벽보를 이같이 게시한다고 밝혔다.

각 후보자 캠프는 홍보에 필요한 슬로건 등을 선거벽보에 추가해 후보자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선관위는 또 최근 대통령 후보 홍보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등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고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부터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해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party.nec.go.kr)를 통해 대선후보 10대 공약 음성서비스를 시작했다. /김유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회장 남문호
사장·편집인 김충혁
광고마케팅 직대 김한흠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9-2100
독자센터 02)721-9872

피아노 치는 박근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작은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생들과 피아노를 치고 있다.

'배추모자' 쓴 문재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여수 서교동 서시장을 방문, 이재가기 귀초자 여사가 배춧잎을 머리에 씌워주자 웃음으로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임 전쟁' 거꾸로 가는 대선

朴 "노무현 시즌2" vs 文 "이명박근혜"… 과거 정부 실정 부각 주력

제18대 대통령 선거 구도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대신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로 흐르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3일째인 29일 박 후보는 문 후보를 '노무현 정권 시즌2'로, 문 후보는 박 후보를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각각 규정짓고 실정 부각에 주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목동 거리 유세에 나서 "실패한 과거 정권의 부활을 막아달라"며 "지난 정부 비서실장으로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도 야당이 되자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소신 없이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문 후보의 가짜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안형환 캠프 대변인은 문 후보의 명품의자 논란, 구기동 빌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지금부터라도 문 후보는 '서민 후보'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여수 서시장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상인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며 "재래시장·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을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막았다. 짝퉁 경제민주화가 드러났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 5대 플랜을 '공주 대통령론'을 내세우며 문 후보를 지원했다. 홍영표 캠프 종합상황실장은 "유대다는 구국의 혁명이라는 잘못된 역사관, 재벌을 비호하는 경제철학, 고집과 불통 등을 박 후보 불가론 이유로 꼽았다.

안도현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주가 여성을 대표하는 일은 봉건사회에서나 가능하다"며 여성 대통령론에 정면 반박했다. /김두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박근혜 로고송 '저작권 도둑질' 논란

18곡 전곡 저작권료 안줘… 논란 일자 뒤늦게 지급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시크릿과 티아라 등 유명가수의 설버 음원을 로고송으로 사용하다 뒤늦게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측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박 후보 홈페이지에 공개된 18대 대통령 선거 로고송 18곡 전곡이 저작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로고송은 박상철의 '무조건',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박현빈의 '오빠 한번 믿어봐' 등 트로트 곡과 카라의 '미스터', 포미닛의 '핫이슈' 등 인기곡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선거 로고송은 원저작자의 문서화된 동의와 저작권협회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관련 절차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 27일 이전까지 모두 마쳤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사흘째인 이날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저작권료 지급을 29일 오전 완료했다"며 "다만 앞서 로고송 후보곡에 대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았고 저작권료는 로고송 사용곡이 최종 확정된 후 지불하기로 저작권협회와 구두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김유리기자

安캠프 내달 3일 해단식 안철수도 직접 참여할 듯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다음달 3일 열리는 캠프 해단식에 참여한다.

안 전 후보는 지난 23일 대통령 후보직 사퇴 후 대중과 연락을 두절한 채 휴식을 취하는 중이며 캠프 해단식에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유민영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캠프 해단식이 다음달 3일 오후 3시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안 전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며 "안 전 후보가 참석해 말씀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근기자

탈북학생 캠퍼스 무료 맛보기

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 '탈북학생 예비대학과정' 모집

다양한 온라인 강의에 개강식·수료식 등 결합 장학금 신청시 가산점에 도서상품권 선물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조남철) 프라임칼리지는 대학 진학을 앞둔 탈북 학생을 위한 '탈북학생예비대학과정' 제3기를 다음달 17일 개설한다.

2010년부터 시작한 '탈북학생 예비대학과정'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대학 진학을 앞둔 탈북 학생에게 온라인 강의를 기반으로 대학 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전반을 제공한다. 수강생은 개강식·수료식 및 튜터링을 활용하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방송대는 "이 과정을 통해 탈북 학생이 대학 생활과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 중도 탈락 예방 및 대학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 학교 생활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남한 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강의한다. 이와 함께 대학 생활에서 필수적인 책 읽기, 정보 검색 방법, 외래어와 학술 용어 등 실용적인 교육도 이뤄진다.

나아가 계열별 직업 세계에 대한 강의와 직업 세계 변화 등도 강의에 포함해 대학 졸업 후를 위한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방송대는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 총 15차례 치러지는 학습 정보는 강의 종료 후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개설하는 프로그램은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방송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수강생은 수강료, 교재비, 개강식 캠프, 수료식 등 참가비에 대해 전액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개강식 참가자에게는 가산점 및 도서상품권, 대학별 교수 및 선배 대학생 만남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강 대상은 2013학년도 3월 대학 입학이 확정(예정)된 탈북 학생이며 다음달 11일 자정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150명 내외. 문의:프라임칼리지 02)3668-4433~4, prime.knou.ac.kr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 온라인 교육일정 (12월 18일~2013년 1월 31일)

강의 주제	담당 교수
오리엔테이션	김영수(서강대 교수)
학사제도 안내	김현상(연세대 학부대학 academic advisor)
교육과정 안내	김혜진(방송대 연구원)
학교생활 도우미	김윤진(방송대 연구원)
학과와 직업세계(인문·사회계열)	손유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학과와 직업세계(공학·자연계열)	손유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변화하는 직업세계	장현진(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효과적인 의사소통	정유승(이화여대 국제스피치토론연구소)
효과적인 학습방법	김현상(연세대 학부대학 academic advisor)
대학에서 공부하기	윤지현(방송대 연구원)
외래어와 교수(학술)용어	김지수(성공회대 겸임교수)
영어 학업	이명규(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Anthony Banks(한양대 겸임교수)
책 읽기와 정보 검색	윤지현(방송대 연구원)
글쓰기 방법	이재성(서울여대 교수)
발표 방법	정유승(이화여대 국제스피치토론연구소)

택시로 늦게 귀가 카드 선승인 이용

택시·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연말 모임으로 귀가가 늦어질 때 '택시·버스 안심서비스'를 이용하자.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안심서비스 사전 가입자가 승차 후 카드 선승인을 하거나 브랜드콜택시 이용 시 요청하면 보호자에게 승하차 문자가 전송된다.

자세한 정보는 택시안심귀가서비스 홈페이지(www.taxiansi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부터 서울 대중교통 스마트폰 앱을 통해 '버스 안심 귀가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앱에서 '자신이 탄 버스'와 '내릴 정류소'를 클릭한 후 문자 알림을 설정해두면 해당 정류소에 도착했을 때 사전에 등록해 놓은 보호자에게 문자가 전달된다.

/송병희기자 unique@

원로언론인 생생한 취재기 대한언론인회 제2집 발간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는 원로 언론인들이 재직 중에 겪은 보람과 이쉬움 등의 생생한 증언을 모은 '실록 언론·언론인의 길 그때 그 현장 못 다한 이야기' 제2집을 출간했다.

'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 제2집에는 격변의 현대사를 기록하며 겪었던 취재기와 경험담 42편이 수록돼 있다. 지난해 발행한 제1집에 참여했던 58명과 이번 제2집을 합치면 60대 이상 언론인 100명의 비화가 2년에 걸쳐 축적된 셈이다.

언론인회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이번 2집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Bullsone
대한민국 1등 와이퍼
불스원 RainOK 하이브리드 HyBRID
RainOK HyBRID
4개의 관절구조
1등 와이퍼의 진가,
눈길에서 판가름 납니다
4개의 관절구조와 메탈프레임으로 밀착력이 강해 쌓인 눈도 잘 닦입니다
일반와이퍼와 플랫와이퍼의 단점을 극복한
와이퍼의 혁신 RainOK 하이브리드 HyBRID
비는 물론 눈과 얼음에도 성능이 우수한 사계절 전천후 와이퍼
CR고무 장착과 공기역학적 디자인 적용
고속주행시 소음/떨림 및 겨울철 결빙 현상 없음
+
관절구조와 메탈프레임 적용
강력하게 밀착되어 들뜸과 줄글림 현상 없음
겨울철 와이퍼 결빙 현상이 없고 밀착력이 강해 쌓인 눈도 깨끗이 닦입니다!
사용전
사용후
불스원 고객만족센터 080-500-1479 불스원 홈페이지 www.bullsone.com

사업장 안전 내 손으로 직접 지켜야

메트로신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 공동기획 (下) 위험성평가 제도

지난달 인천의 한 병원 건설현장 병원 본관실 증축공사에 투입된 건설업체 근로자 강모(5?)씨가 떨어진 벽돌 덩어리에 맞아 사망했다. 분만실을 확장하기 위해 벽체를 해체하고 파쇄된 벽돌을 치우는 과정에서 강씨는 위에서 떨어지는 벽돌 덩어리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 물체가 날아오거나 떨어져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해야 하지만 강씨가 일하던 곳에서는 안전모 보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달 크리스털 제품을 제조하는 경기도 광주의 국민사에서 윤모(45)씨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사망했다. 제조 물류로 인해 아침부터 분주했던 이 날, 윤씨는 한 손에 포장용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계단은 2층 창고와 연결돼 평소 직원들이 계단을 이용해 물건을 운반하는 곳이 많은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계단을 통해 물건을 옮길 때는 반드시 전방 시야를 확보해야 하지만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윤씨는 화를 입고 말았다.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 찾아 제거… 산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 풍성

산재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심각하다. 2012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률은 0.9%으로 일본(0.2, 2009년 기준)의 5배에 달하고 미국(0.35)의 3배, 독일(0.16)에 비하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산재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명령통제형 규제 방식을 탈피해 위험성 평가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험성 평가 제도는 90년대 이후 영국, 독일, 일본 등 산업 안전선진국들에서 먼저 도입됐다. 산재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도로,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화된 선제 예방활동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위험성 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또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을 받되 내년은 50인 미만(를 공사대금 120억 미만 건설공사)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 사업장은 현장심사를 거쳐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인정, 불인정 판정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3년간 사업장 감독을 면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15% 산재보험을 할인하며 정부포상 및 표창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규제 일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0.5%)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위험성 평가 제도에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격에 맞는 안전보건 위상을 제고하겠다"말했다.

/메트로기자 a ●●●@metroseoul.co.kr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종 안전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원 의정비 '전국 최고' 2.45% 인상

서울시의원 내년 의정비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9일 서울시는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올해 6100만원에서 150만원(2.45%) 올린 625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정부 기준에 따라야 하는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은 그대로 두고 연 4600만원의 월정수당은 150만원 인상한 것이다.

시는 앞서 잠정 인상률을 4.5%로 결정했지만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상률을 절반으로 줄였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은 2008년 이후 4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잠정 인상률에 대해 75.4%가 '높다'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정윤아기자

퇴직연금은 '목돈' 주택연금은 '월급'

노후불패 ③ 다양한 연금제도

자녀 양육 등으로 은퇴 준비에 소홀했던 50대 이상 퇴직·고령자를 위해 정부가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한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알아본다.

▲ 노후준비의 기본,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국민연금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질병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 방식을 통해 국민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0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나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하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산정은 물론 평생 보장이 장점으로 꼽힌다.

문의: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퇴직 이후의 안정적 노후 설계를 위한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는 목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오롯이 노후 대책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중도 인출이 엄격히 제한돼 노후자금이 생활자금으로 미리 소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준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수령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보다 이르다.

▲ 집 한 채로 평생연금, 주택연금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연금이 중단될 걱정이 없으며 재산세 25% 감면 혜택과 대출이자 비용의 연금소득공제 등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연금 대상자가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미리 일정 금액을 설정한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받는 '종신혼합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문의: 1688-8114

▲ 농지가 주는 든든한 노후생활, 농지연금

노후생활을 계획 중인 영농인이라면 농지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농지 경작이나 임대도 가능해 추가 소득도 기대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은 농지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 규모는 3만㎡ 이하인 가구만 신청 가능하다. 영농 경력도 총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센터 1577-7770 /김유리기자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91개 행복노후설계센터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

※노후 설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전국 91개 '행복노후설계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내)에서 전문상담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후 준비에 필요한 정보가 집약된 '노후플랜 가이드북'도 받아두면 유용하다.

진병율(오른쪽 둘째)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해 열린 제24회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 행사 도중 'AIDS' 글자 모양으로 부착된 ... 를 하고 있다

에이즈 이젠 만성질환입니다

오늘 홍대앞서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 콘돔 등도 나눠줘

이번주 '불타는 금요일' 홍대앞이 에이즈 예방의 거리로 탈바꿈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이 12월 1일 25회를 맞는다"면서 "대국민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관련 해소를 위해 세계 에이즈의 날 하루 전인 30일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25회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은 2호선 홍대역 8번 출구 '홍대앞걷고싶은거리 어울마당로'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개그맨 양배추씨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홍명보 감독 등 유명인사의 영상메시지 상영과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illegible] 에이즈 관련 민간 단체장도 대거 참석해 국내 에이즈 예방 및 퇴치, 감염인의 복지와 자활,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도 전개될 예정이다.

홍명보 감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 관계자는 "플래시몹, 레드리본 인간띠, OX퀴즈 등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대규모 [illegible] 가자에게 콘돔, 안내책자, 손수건, 장갑, 캔커피, 책두유, 물티슈 등 풍성한 선물이 증정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누적 내국인 에이즈 감염인 수는 총 8542명으로 7030명이 생존 중"이라며 "감염경로가 밝혀진 사람 가운데 6905명(99.1%)이 성접촉 4685명(67.7%)은 수 [illegible] 시민들이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용호기자 unie.o@metroseoul.co.kr

에이즈 관련 상식 O×퀴즈

1. HIV와 에이즈는 같은 말이다?
☞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의 영어 약자로 HIV 감염으로 면역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 X

2. HIV에 감염된 사람은 에이즈 환자?
☞ HIV 감염인이란 HIV에 감염된 모든 사람을 말하며 그중 질병이 진행되어 면역체계가 손상·저하되었거나 감염증·암 등의 질병이 나타나는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한다. 정답 X

3. 음식 함께 먹어도 HIV 감염 안 된다?
☞ HIV 감염인과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떠먹으면 HIV 감염이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음식에 들어간 HIV는 생존할 수 없으므로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다. 정답 O

4. HIV 감염인과 손 잡아도 감염 안 된다?
☞ HIV는 성관계나 상처, 점막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땀은 상대방의 몸 안으로 들어가도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다. 정답 O

5. HIV 감염인과 키스해도 감염되지 않는다?
☞ 키스만으로는 감염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양의 HIV가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침에는 1ml당 5개 미만의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어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다. 정답 O

6. 모기를 통해 HIV에 감염된다?
☞ HIV는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질병이다. 따라서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정답 X

7. 한 번이라도 성관계하면 HIV에 감염된다?
☞ HIV 감염인과 1회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로 낮다. 그러나 성관계 시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 X

8. HIV 검사는 실명으로 안 해도 된다?
☞ 에이즈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HIV 검사를 기피하므로 익명 검사를 법으로 규정해 권장하고 있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가 검사 전에 익명검사를 요청하면 된다. 정답 O

9. HIV에 감염되면 바로 죽게 된다?
☞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면역 결핍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10~1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하지만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한다면 3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정답 X

10. 에이즈는 치료제가 있다?
☞ 현재 HIV 감염인들이 복용하는 치료제는 완치제는 아니 [illegible] 다. 꾸준한 복용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정답 O

클린턴 "아내 빚 좀 갚게…"

지지자들에 "도와달라" e-메일 차기 대선 출마용 포석 전망도

"아내의 선거 빚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선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이 같은 e-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CNN·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했다가 많은 선거 빚을 떠안은 아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위해서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린턴 장관의 부채는 지난 9월 말 [illegible] 알려져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힐러리의 열혈 지지자 중에서 사람을 골라 뉴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다시 한번 하기를 기꺼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2년 전 아내의 빚 청산을 위해 5달러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뉴욕에서 자신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특전'을 주겠다고 약속한 일을 상기시킨 것이다.

클린턴 장관의 선거 빚은 2008년 12월에는 2500만 달러에 달했으나 이러 [illegible] 전에는 77만 달러 정도로 떨어졌고, 지금은 7만 달러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한편 클린턴 부부가 다시 선거 관련 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 일부 언론들은 클린턴 장관의 2016년 대선 출마와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은 "클린턴 장관이 2016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의 동생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92년에 이은 클린턴가와 부시가의 리턴 매치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美로또 6300억 대박 '주인공 탄생' 美 당첨금 5억8800만 달러(약 6300억원)로 연방 미 전역을 복권 열풍으로 몰아넣은 '파워볼'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28일(현지시간) 파워볼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첨자는 두 명으로 애리조나주와 미주리주에서 나왔다. 당첨번호는 5, 23, 16, 22, 29 그리고 파워볼 6이었다. 이번 파워볼 로또는 지난 3월 일 '메가밀리언' 복권의 6억4000만 달러에 이어 미국 로또 사상 두 번째로 큰 당첨금이다. 사진은 전날 시카고의 한 상점 전광판에 나온 파워볼 당첨 금액. /AFP 연합뉴스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USA

These aren't your parents' librarians

Calendar shows off youth, teen librarians with tats
Effort aims to raise funds for library organization

metro Russia

metro

Эмери отправ в отста

«СТАЛИНАТОР»

'터미네이터' 눈 박아넣은 스탈린

옛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얼굴에 터미네이터의 눈,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조커'의 새빨간 입술을 가진 그림…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치인과 종교 주요 인물 등의 얼굴을 합성한 이색 초상화 전시회가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 자신의 초상화 작품을 출품한 화가 빅토리아 차리코바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작품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형식과 유행에 얽매이지 않는 초상화를 그리고 싶었다"고 전시회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metro HongKong

檢乳要對稱

공무원 되려면 생리주기 밝혀라?

최근 중국 우한시 후베이성 노동청 앞에서 여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중국의 현행 여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는 질경 검사 등 산부인과 검사가 포함돼 있다. 또 초경 연령과 생리 주기 등도 질문 대상이다. 시위에 참가한 한 여대생은 "산부인과 검사의 핵심은 성병이나 암을 발견하는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업무상 접촉으로는 성병이 전염될 일이 없고, 대부분의 성병은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신으로 도서관 살리기?

미 매사추세츠주 도서관 사서 16명 '보수적' 고정관념 깨고 달력 제작… 홍보효과 '톡톡'

미국의 '문신 사서'들이 새해 달력의 모델로 나섰다.

매사추세츠주도서관연합(MLA)의 사서 10여 명은 몸에 꽃, 코끼리 등 다양한 문신을 새겼다. 뿔테 안경을 쓰고 책을 대출해주는 '딱딱한' 사람으로 인식돼 있는 사서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다. 최근 이들은 도서관 발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달력의 모델을 자청했다. 16명의 '문신 사서'들은 특별한 달력을 만들기 위해 재기발랄한 포즈를 취했다. 사서들이 등장하는 이색 달력의 가격은 21달러(약 2만 2000원).

MLA의 청소년 서비스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세린 콜빈은 "지역 내 도서관 시설과 사서 ○○○ 시급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력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콜빈은 2009년 텍사스주도서관연맹(TLA)이 'TLA의 문신한 여성들'이란 제목으로 만든 달력을 보고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TLA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피해를 입은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력을 제작했다.

"사람들이 도서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기 침체로 많은 도서관들이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죠. 지역 도서관을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사서들은 달력 프로젝트를 통해 기금 모금 이외에 '이미지 변신'이라는 또 다른 계획도 가지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이 사서라는 단어를 듣고 떠올리는 '나이 많고, 보수적이고, 멋 없이 도서관을 둘러보며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

콜빈은 "사서들도 성격이나 취향 등 스타일이 제각각이고 활발한 사람도 꽤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도서관도 살리고 우리 이미지도 확실하게 바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제작한 달력이 지역 신문과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사람들 입에 도서관 얘기가 자주 오르내리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달력을 보고 도서관을 처음 찾는 사람도 있다"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사서들의 이미지 변신은 일단 성공한 듯하다. 달력을 본 주민들은 "문신을 한 사서들의 통통 튀는 매력이 담긴 달력이 인상적이다" "좋은 일을 즐겁게 하는 것 같다"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첨단 IT 기기와 전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미국 내 사서 고용은 증가세다. 미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서 고용은 7%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미카엘 노던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metro France

흔한 푸드트럭 대신 세발 자전거 빵장수

푸드 트럭이 즐비한 파리 시청 인근에 최근 세발자전거 '빵장수'가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장-폴 뒤푸르는 프랑스 북부 도시 릴 출신으로 유명 카페와 식당에서 25년간 일했다. 뒤푸르는 몇 년 전 파리로 이사해 '거리의 사장님'으로 변신했다.

뒤푸르는 "푸드 트럭은 정말 많다. 나는 개성 만점 세발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며 "세발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이동도 간편하며 요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리 도구도 갖추고 있다"고 으쓱해했다.

대다수 푸드 트럭 주인들은 핫도그나 버거 등을 판매한다. 하지만 뒤푸르는 고기 등을 얹은 슬라이스 빵과 잼을 바른 '타르틴'을 팔고 있다.

그는 "타르틴은 프랑스 전통 요리다. 세발자전거에서 '프랑스의 맛'을 알리고 싶다"며 "각 지역의 향토 음식을 올려 여러 종류의 타르틴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르틴의 가격은 6유로(약 8400원). 세트 메뉴는 7~9유로 정도다. 부담 없이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단골도 여럿이다. 뒤푸르는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영업을 한다. 하루 평균 매출은 약 100유로다.

뒤푸르는 "특히 점심 때 타르틴이 많이 팔린다"며 "앞으로 일에는 센 강변 도로에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시작하고 첫 달 매출은 괜찮은 편인데 추위가 찾아와 걱정이라고 했다. "타르틴이 따뜻하기는 하지만 영하 10도 되는 날씨에 손님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군침 도는 '엘빙 타르틴'이라면 발길을 돌려 찾아오지 않을까요."

/고델리 샤르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8년 동안 1400일 진단서 끊은 기사

온난화에 매연 '숨 막히는 멕시코'

Kospi

Kosdaq

497.03 / 495.82 / 493.63 / 494.48 / 496.73 +2.25
11/23 / 11/26 / 11/27 / 11/28 / 11/29

Nikkei (일본)
9400.88 (+92.53)
Hang Seng (홍콩)
21922.89 (+213.91)
Shanghai (중국)
1963.49 (-10.03)
Dow Jones (미국)
12985.11 (+106.98)

EXCHANGE RATE

달러	1083.50
엔(100)	1318.45
유로	1404.43
위안	173.99

에코세대 재무설계 낙제수준

70%가 "생애주기별 자금계획 세운적 없다"…부모의존도 큰 탓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1979~85년생) 10명 중 7명은 생애 주기별 자금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었다. 상당 부분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탓이다.

29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에코세대의 라이프 금융플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세대의 69.4%가 생애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에코세대 71.8%는 생애 재무설계를 해본 적이 없으며 특히 이들 가운데 44.1%는 향후에도 재무설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코세대는 본격적인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재무계획이 필요한 첫 세대다.

하지만 이들은 ▲지나치게 적은 보유자금(55.2%) ▲찾기 어려운 정보(22.0%) ▲믿기 어려운 전문가 조언(20.2%) 등의 이유로 재무설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5000만원 이상의 종잣돈을 마련했거나 조만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에코세대는 27.3%에 불과했다.

특히 종잣돈 마련 방법으로 '부모로부터의 원조 및 상속'을 택한 에코세대는 23.2%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에코세대의 투자성향을 분석한 결과 73.3%가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에코세대의 금융자산 81.4%가 '예·적금', '보험' 등 안정형 금융자산에 편중돼 있었다.

에코세대의 62.3%가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대출이 이어지는 경우도 36.7%나 됐다.

황원경 선임연구위원은 "에코세대는 젊다는 점 때문에 자산 축적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장수로 인해 소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계획적인 자산관리가 어느 세대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별 삶의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재무계획 수립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조언과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수익성을 고려해 예·적금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부산지역 32%로 최고

부산이 저축은행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건네받아 공개한 '저축은행 사태 지역별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초과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부산지역이다.

전체 피해자 7만651명 가운데 부산지역 피해자는 2만2933명(32.5%)이었으며 이어 서울(2만2705명·32.1%), 경기(1만2044명·17.0%), 인천(3043명·4.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사회적으로 처리해야 할 비용은 50조6134억원으로 집계됐다. /김가성기자

하이네켄 140주년 한정판 29일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의 탄생 140주년을 맞아 '2013 하이네켄 리미티드 에디션'이 출시돼 모델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4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엘리베이터 '휴대폰 불통' 그만!

KT,엘로하 기술 개발…32개 아파트 우선 적용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가 불통되는 사례가 줄어든다.

KT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동통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엘로하(ELevator Optic Repeater with HAmsae)' 기술을 개발해 전국 32개 아파트에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엘로하는 건물 지하주차장의 송신기와 엘리베이터 내 중계기 사이를 유선 광케이블로 연결해 3세대(3G) 롱텀에볼루션(LTE) 등 무선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게 해준다.

KT 측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전파 손실이나 간섭이 많이 [illegible] 서비스가 끊기는 일이 잦았고, 운행사고나 범죄가 일어났을 때 외부와 연락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엘로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해부터 엘로하 관련 기술을 개발했으며 전국 주요 도시의 아파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훈기자

웃다가 울다가…애플 조울증

네덜란드서 삼성에 승소
3분기 아이패드 점유율 14%p 추락한 55% 기록

애플이 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에 승리했다.

29일(한국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쓰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애플의 사진첩에 쓰인 이른바 '포토 플리킹' 특허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포토 플리킹은 스마트폰의 사진첩 앱에서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사진을 넘겨 보는 기능이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와 태블릿 PC 갤럭시탭(7인치), 갤럭시탭 10.1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 대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이 아니므로 당장 삼성전자가 이번 판결로 인해 입는 손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헤이그 법원은 앞서 지난달에는 '멀티 터치' 특허와 관련한 공판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애플의 아이패드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CNBC방송 등 미국 언론은 같은 날 시장조사업체 ABI리서치의 통계를 인용해 아이패드가 올해 3분기 태블릿 PC 시장에서 점유율이 5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분기보다 14%포인트나 낮아진 것인 데다 2010년 아이패드 출시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반면 안드로이드 OS로 구동되는 태블릿 PC의 점유율은 44%를 기록했다.

/박성훈기자 zen@

5억 이상 체납자 인터넷에 공개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7300명이 누구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등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4442명과 법인 2771명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29일 게재했다. 명단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 기간 2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1년, 5억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공개 인원이 작년 1313명에서 5.5배 늘었다. 체납 세금은 개인 6조4531억원, 법인 4조6246억원 등 모두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꼴이다.

한편 개인 체납자 가운데 이노잘전 ㈜전영금은 대표가 부가가치세 등 383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종인 선영금은은 법인 명의로도 478억원을 내지 않아 대표의 업체의 체납 규모가 861억원에 달했다. /김지성기자

주택대출 연체율 '아찔'

10월 0.94%…6년래 최고

은행들이 곤혹스러워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크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0월 말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0.94%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 10월 말 0.44%이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년 만에 두 배 넘게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0.94%) 이후 가장 높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아파트 집단대출(분양 후 입주 전까지의 중도금과 이주비 등 대출) 연체가 많이 쌓였기 때문이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0월 말 1.90%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12월 말(0.95%) 이후 가장 높았다. 집단대출 연체가 쌓이는 까닭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부존재 소송 때문이다. /김하성기자 lazyhand

'포니정 장학생' 베트남서 60명 선발

포니정재단(이사장 김진현)은 28·29일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와 하노이 국립대 등에 재학 중인 60명의 대학생을 포니정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서 각각 열린 전달식은 포니정재단 김진현 이사장을 비롯해 선정된 대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니정재단 김진현 이사장은 "베트남의 청용 사업성과 베트남인의 개척 의지는 도전을 멈추지 않고 혁신을 일구어낸 정세영 명예회장의 신념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매출 1000원당>

기업들 '52원 남는 장사'

국내 1만여 회사법인 조사…지난해 매출 늘었지만 수익성 악화

롯폰기 힐즈 '착한쇼핑' 시즌 롯폰기 힐즈의 마스나 … 월드 와이드가 3년 연속 협력해 롯폰기 힐즈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마스터카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마스터카드 고객들의 크리스마스 쇼핑 또는 레스토랑에서 마스터카드로 결제 시 대지진의 피해자인 고아들을 지원한다. /김지성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은 1000원짜리 상품을 팔아 52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됐다.

통계청은 29일 국내 38만 개 회사법인 중 자본금 3억원 이상 상용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체 1만1733개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2011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준 자본금 3억원 이상 상용근로자 50명 이상인 국내 기업체 수는 2010년에 비해 6.2% 증가했다. 종사자 수 역시 396만 명으로 24만7000명 늘었다. 출판·영상·통신업(22%), 기타 서비스업(7.9%), 제조업(7.7%) 기업체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5.8%), 건설업(-13.3%)은 줄어들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기업체들의 총 매출액은 2103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12.1% 늘었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09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7% 줄었다. 기업들의 매출액 1000원당 순이익은 52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출판·영상·통신업의 매출액 1000원당 순이익이 92.5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제조업(59.4원), 전기가스업(42.6원), 도소매업(39.2원), 건설업(0.3원) 순이었다. 운수업의 경우 매출액이 1000원 발생할 때마다 15.5원씩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들이 매출액 1000원으로 얻은 순이익은 2007년 67원에서 2008년 33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2009년에는 53원, 2010년에는 62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기업체 종사자 396만 명 중 상용근로자는 전체의 88%인 348만4000명으로, 2010년에 비해 24만5000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출판·영상·통신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중기자 zzz@metroseoul.co.kr

'BMW 주니어캠퍼스' 활짝

BMW 코리아가 어린이의 '과학 IQ'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BMW코리아 미래재단은 29일 어린이 과학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 '주니어 캠퍼스'를 공개했다.

주니어 캠퍼스는 어린이들이 자동차를 매개로 기초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친환경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독일 본런 BMW그룹 본사의 주니어 캠퍼스를 도입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동식 캠퍼스 차량을 통해 방문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캠퍼스는 2013년도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기본 이론인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을 융합한 교육 콘텐츠와 자기주도식 체험 시간을 운영하고 조별 활동을 통해 책임감, 협동심, 리더십을 길러줄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소외 지역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상후기자

국내 지식봉사 선도…JA코리아 10주년

경제교육 시상식 열려

국제 비영리경제교육기관 JA Korea(이사장 강경식 전 부총리)는 28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JA Korea 경제교육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JA Korea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년간 경제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시상식이다. 최우수 후원기업상, 최우수 후원기업 담당자상, 최우수 봉사자상, 최우수 교사상, 최우수 후원자상, 특별상 등 6개 분야에서 총 20개 기업 및 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형지 전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윤병철 FP협회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시상식에는 한화 장일형 사장, 보잉의 팻 게인스(Pat Gaines) 사장, KT&G 유춘수 전무, 교보생명 박차수 상무 등이 참석하여 최우수 후원기업상을, IBM의 최연미, 이화여대 대학원의 오성은 등이 최우수 봉사자상을 받았다.

강경식 이사장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기르치는 JA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지식 봉사의 붐을 일으키고,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야구게임 춘추전국시대 개막

'마구마구' '슬러거' 천하 그만! '프로야구2K' 'MVP…' 등 5편 도전장

내년 국내 프로야구가 9구단으로 운영되면서 역대 최고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야구게임 시장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기존 온라인 야구게임의 주역이었던 '마구마구' '슬러거' 등 캐주얼풍 야구게임을 상대로 시뮬레이션과 액션을 주요 특징으로 내세운 '프로야구2K' 'MVP베이스볼 온라인'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넥슨이 미국 유명 게임업체 2K 스포츠와 공동 개발 중인 '프로야구2K'는 새로운 온라인 야구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면서 경기 관전 중 결정적인 순간에 작전은 물론 직접 투수나 타자로 개입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액션 개입 시스템'이 차별점이다.

또 콘솔 야구게임 '2K 시리즈'의 2012년도 최신 엔진을 바탕으로 선수의 타격, 투구, 러닝, 슬라이딩 등 모든 동작을 실감나게 구현했으며, 다양한 타격과 투구 시스템으로 박진감 넘치는 야구 경기의 묘미를 효과적으로 반영했다.

엔트리브소프트의 'MVP 베이스볼 온라인'은 지난달 오픈베타테스트를 실시하며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 스포츠 게임 명가 EA스포츠의 'MVP 베이스볼 시리즈'를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에 맞게 한국 프로야구 라이선스를 반영해 새롭게 개발한 온라인 야구게임이다. 5000여 개 이상의 모션 데이터를 사용해 사실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슬러거'로 액션 야구게임 시장 확대를 이끈 와이즈캣의 신작 '프로야구 더 팬'도 내년 시즌 오픈을 준비 중이다. '프로야구 더 팬'은 크라이엔진3를 활용해 선수의 외형과 세세한 표정까지 구현했다. 또 KBO의 선수 정보가 실시간으로 게임에 연동되면서 지난해 데이터가 아닌 현재의 선수 데이터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모바일도 예외가 아니다. CJ E&M 넷마블의 스마트폰용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마구매니저'의 반응이 뜨겁다. '마구마구'의 SD캐릭터와 선수 카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한 스마트폰용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으로 '마구마구'의 캐릭터들이 펼치는 경기를 풀 3D로 중계볼 수 있고 문자 중계를 제공한다.

컴투스와 '9이닝스: 프로야구 2013' 게임빌의 '2013프로야구'역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액션파 유저들 '스틸파이터' 나와!

온라인게임의 계절 맞아 그라비티 등 신작 출사표

모바일 게임에 밀려 잔뜩 움츠렸던 온라인 게임이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기지개를 켜고 있다.

먼저 '리니지' 제작자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가 개발에 참여한 MMORPG '아키에이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엑스엘게임즈는 다음달 12일 '아키에이지'의 서비스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초 공개서비스가 점쳐진다.

북미 웹진에서 기대작 1순위로 뽑히는 등 해외에서도 많은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

넥슨의 온라인 축구게임 '피파온라인3'도 큰 기대를 얻고 있다. 실사풍 그래픽과 실제 축구게임을 그대로 옮긴 세밀한 연출성, 구단 관리를 통한 전략 플레이 시스템 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중견 개발사도 앞다퉈 신작을 출시한다. 한게임은 '열혈강호 온라인'의 후속작 '열혈강호2'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실사풍 캐릭터를 내세워 동명의 원작인 전통 무협에 가깝게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탑승물과 논타깃팅과 타깃팅 액션을 혼합한 독특한 전투 시스템으로 무협의 재미를 살리고 있다. 다음달 말 공개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그라비티도 내년 초 신작 액션 RPG '스틸파이터'의 공개서비스에 나선다. 쿼터뷰 시점에 최적화된 논타깃팅 액션과 다양한 보스전을 통해 통쾌한 타격감과 역동적인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

스테이지에서 몬스터를 처치하면 힘, 마력, 체력 등 다양한 능력치와 '오리진 포스'가 주어져 캐릭터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더욱 통쾌한 전투를 즐길 수 있다. 또 스테이지마다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의 스킬을 빼앗아 사용하는 '오리진 스틸' 시스템으로 긴장감 있는 보스전 플레이는 물론 보스 몬스터의 스킬을 수집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전투 스타일을 만드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박성훈기자

삼성 '갤럭시 카메라' 첫선 삼성전자는 29일 '갤럭시' 카메라를 선보였다. 세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4.1(젤리빈)을 탑재한 '갤럭시' 카메라는 사진 촬영 시 공유 촬영 기능을 미리 설정해놓으면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주변기기를 검색하고 사진 촬영 때마다 실시간으로 사진이 주변의 스마트기기로 전송된다. /박성훈기자

차세대 영화 사운드 '돌비 애트모스'

회전목마에 앉아 노래를 감상하고 머리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몸으로 느끼는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글로벌 영상·음향 엔터테인먼트의 선도기업인 돌비 래버러토리스가 29일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장점을 지닌 차세대 영화 오디오 플랫폼인 돌비 애트모스를 공개했다.

돌비 애트모스는 사물의 움직임과 위치에 따라 입력된 소리를 조정할 수 있는 최대 128개의 오브젝트 기반 믹싱과 64개 채널로 재생되는 채널 기반 믹싱을 결합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오디오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디즈니 픽사의 '메리다와 마법의 숲',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가디언즈', 20세기 폭스의 '테이큰2', 제이싱 페버릭스 '라이프 오브 파이' 등을 비롯해 다음달 개봉을 앞둔 화제작인 워너 브러더스의 '호빗: 뜻밖의 여정'도 돌비 애트모스의 도움으로 생생한 사운드를 만들어 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메가박스 코엑스 M2관과 CGV 영등포4관에서 돌비 애트모스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김재현 돌비 코리아 대표는 "돌비 애트모스는 돌비가 수년 만에 선보이는 가장 의미 있는 혁신이며 미래 영화산업의 사운드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기술"이라며 "조만간 게임, TV, 홈시어터 등을 통해서 돌비 애트모스의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하희철기자 kerisee@

이승기가 찍은 비공개 감성컷 '궁금'

삼성스마트카메라 홈피 미니앨범 '숲'에 못담긴 비하인드 사진들 대방출

톱스타 이승기가 포토그래퍼로 변신했다.

삼성 스마트카메라는 이승기의 5.5 미니앨범 '숲' 포토에세이의 비공개 컷을 공개한다. 비공개 컷은 이승기가 국내 여행에서 삼성 스마트카메라 NX20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 따뜻한 시선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돋두히는 이승기의 모습을 담았다.

이승기는 이번 앨범 발매와 함께 생애 첫 사진작가로 도전해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포토에세이로 담아 내 여행을 통해 느낀 감성을 팬들에게 전달했다.

삼성 NX20으로 촬영한 이승기의 감성 포토에세이는 이승기의 새 미니앨범 '숲'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처 수록되지 못한 비하인드 컷은 삼성 스마트카메라 공식 마이크로사이트(www.samsungsmartcamer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롯데월드 '사랑의 연탄배달부' 구슬땀 29일 롯데월드 이동우 대표와 임직원 50여 명이 서울 송파구 거여동을 찾아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롯데월드는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에 연탄 1만 장을 기부했다.

하루야채로 '무채가족' 탈출!

한국야쿠르트 건강캠페인 전국 1000가구 체험 '호응'

한국야쿠르트가 테트라팩 코리아와 함께 하루 350g의 야채를 매일 섭취하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무채가족 탈출! 하루야채 350g 건강 밸런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야채 섭취량이 부족한 '무채가족' 1000가구를 대상으로 1일 야채 섭취 권장량인 350g의 야채를 매일 섭취할 수 있게 가족의 식습관을 개선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야쿠르트가 최근 1000가구를 모집한 하루야채 체험 프로그램에는 전국에서 2000여 가구가 넘게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하루야채 체험 프로그램에 선발된 1000가구에게는 4인 가족이 2~4주 동안 하루 한 병으로 350g의 야채 섭취 권장량을 채울 수 있게 유기농 야채음료인 '하루야채 시리즈'를 무료로 제공한다. /안효순기자

더페이스샵 '희망고 세일'

오늘부터 12일간 진행 — 수익금 남수단에 기부

선물할 일이 많은 연말을 맞이 대규모 화장품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 마음을 담아 더욱 뜻깊다.

자연주의화장품 더페이스샵이 희망고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세일을 오늘(30일)부터 12일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남수단 지역 난민에게 망고나무를 심어주는 사회공헌활동 '희망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해 연말연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알뜰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팀 발효원액 트리트먼트'와 '망고씨드 각질 클리어 스무더' 등 최근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퍼스트 에센스(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하는 피부 정돈용 에센스) 6종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밖에 메이크업 라인은 30%, 기타 화장품 및 화장솜 등 잡화 품목까지 30% 할인을 적용해 혜택을 강화했다.

더페이스샵 마케팅부문 백종성 파트장은 "올 한 해 성원해준 고객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수익금 기부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박지원기자

추울수록 폼나는 '하이톱'

발목 감싸는 스니커즈 올겨울 신발 대세 예감

추운 날에는 발목까지 감싸야 따뜻하다. 혹한이 예고된 올 겨울 발목 위로 올라오는 신상 '하이톱 스니커즈'가 좋아지고 있다.

슈즈 멀티숍 슈마커에서 독점 판매하는 영국 브랜드 '박스프레쉬'는 아웃도어 스타일의 하이톱 스니커즈 '스왑 디 퍼'(16만9000원)를 선보였다.

안감으로 퍼를 사용해 따뜻하고, 아웃솔에 마찰력이 좋은 고무 소재를 적용해 겨울철 빙판길에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다. 다크브라운·블랙·그레이 등 세 가지 컬러로 데님이나 코듀로이 팬츠에 신으면 어반 아웃도어룩을 연출할 수 있다.

푸마는 키 작은 여성들을 배려했다. 이번 시즌 운동화의 편안함을 그대로 담은 웨지 하이톱 '카민 웨로우'(12만9000원)를 내놨다. 하이킹 부츠에서 영감을 받아 여성스러움과 스포티한 매력을 동시에 뽐낸다. 특히 프리미엄 가죽 소재와 패딩을 매치해 따뜻하면서도 멋스럽다.

프랑스 스니커즈 브랜드 까이유에가 선보인 이번 시즌 하이톱 계통은 더욱 다채롭다.

얇은 컨버스 소재 대신 도톰한 스웨이드를 사용한 슈즈(11만9000원)는 따뜻할 뿐 아니라, 은은한 카멜 브라운 컬러가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낸다. 칙칙한 겨울 옷에 포인트가 되는 '레비드 컬러 하이톱'(9만9000~10만9000원)과 화려한 복고 패턴을 적용한 '레인보우 하이톱'(11만9000원)도 눈길을 끈다. /박제인기자 pjw@metroseoul.co.kr

와! 지산리조트 스키장 개장

서울 40분거리 무료셔틀 오늘 방문땐 리프트 무료 시즌 내내 각종혜택 풍성

서울에서 40분이면 도착하는 스키장 지산리조트가 오늘(30일) 2012/13시즌을 오픈한다.

오픈 당일에는 스키장 방문객 모두 리프트 무료 이용 및 렌탈과 강습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음날부터는 슬로프 오픈 상황과 성수기·준성수기·비수기 기간 등 운영 상황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서울 수도권지역으로 무료 운영되는 셔틀버스는 신촌 노선과 신림·사당 노선을 증설해 서울 지역에서 이용하기 훨씬 편해졌다. 청주 유료 노선도 신설하는 등 셔틀버스 신규 노선을 추가했다. 셔틀버스 이용하면 시즌 전 기간 렌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피카드 가입자에게는 가입 시 무료 리프트권 1장을 제공하고 2시즌 동안 리프트 35%, 렌탈 50%, 강습 30% 할인과 함께 마일리지 혜택을 추가해 시즌 내 리프트권 6회째 구매 시 50% 할인, 11회차는 공짜다. 마일리지 적립은 한 시즌에 해당한다. 신한·삼성·농협카드 사용자는 시즌 전 기간 리프트 25%, 렌탈 30%, 강습 20%, 콘도·식당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2/13 시즌권 구매자는 리프트와 렌탈 패키지 50% 할인권 2장, 장비 보관료 50%, 개인사물함 30% 또는 대형사물함 20~25% 할인, 콘도·식당 식음료 10%, 시즌권 동반자 3인 30% 할인의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문의: www.jisanresort.co.kr 031)644-1200 /박지원기자

BIC '어린이 보호기능 라이터' 정착 앞장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 BIC가 29일 서울 강남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BIC 라이터 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세계 어린이 보호 기능 관련 규정과 개정된 한국 가스라이터 안전 기준을 소개했다. BIC는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 기능 라이터 캠페인'을 실시, 지속적으로 관련 기준 강화 및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눈빛도 연기도 한뼘 깊어졌다

Star bag

에이젝스 청소년연맹 '얼굴'

그룹 에이젝스가 한국청소년연맹 2013년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28일 열린 위촉식에서 한국청소년연맹은 "'영웅'을 의미하는 에이젝스의 그룹명처럼 멤버 개개인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과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가 청소년의 꿈과 이상 실현을 위한 연맹의 활동 취지에 부합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YB 리쌍 싱글 '매드 맨' 발표

합동 공연을 여는 록밴드 YB와 힙합 듀오 리쌍이 다음달 4일 프로젝트 싱글 '매드 맨'을 발표한다.

'매드 맨'은 미친 듯이 신나게 놀아보자는 뜻을 담은 곡으로, 두 팀이 기존에 발표한 협업 곡인 '런 선데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넘친다. 두 팀은 다음달 23~25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공연한다.

선미 원더걸스 재합류설

원더걸스를 탈퇴한 선미가 재합류설에 휘말렸다.

그는 29일 원더걸스 팬들과 온라인 채팅에서 "멤버들과 같이 좋은 소식 들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결혼을 앞둔 선예 대신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샀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별다른 뜻은 없다"고 밝혔다.

군복무 김무열 연예사병 지원

군 복무 중인 배우 김무열이 국방부 홍보지원대에 지원했다.

지난달 9일 입대해 14일 퇴소한 그는 최근 실시된 면접에 참가했다. 김무열 측은 "성실하게 군 생활을 잘 하고 있다. 면접을 통과하면 연예사병으로 복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면접에는 배우 류상욱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 손가락 마친 주지훈

5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작인 SBS 주말극 '다섯 손가락'을 끝낸 주지훈(30)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밝은 모습이었다. 25일 촬영하자마자 머리카락도 흑색으로 물들이고 "제대 후 한 번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젠 쉴 수 있어서 좋다"며 여유를 드러냈다.

◆ 피아노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지난 4개월간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천재 피아니스트 유지호 역을 열연했다. 비록 드라마는 10% 초반의 시청률에 머물렀지만, 주지훈은 분노·슬픔 등 배역의 복합적인 감정들을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이번 연기는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라서 틀든 건 없었어요. 이전에 했던 드라마와 다른 스타일이라 힘들었죠. 극 중 충격적인 일들이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유 없이 다양한 감정들을 보여줘야 했죠.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피아노에 대한 흥미가 늘어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졌답니다."

모자 사이로 호흡을 맞추며 극을 향해 이끌었던 채시라에 대해 "연기라는 말할 것도 없고 권위 의식도 없는 좋은 선배"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여주인공 진세연과의 멜로 연기에 대해선 "띠동갑 차이라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걸 새삼 느꼈다. 드라마 '궁'을 찍을 때 세연인 초등학교 5학년이었더라"면서 웃었다.

◆ 연기 첩첩산중… 그래도 설레요

무난하게 복귀식을 끝냈지만 사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마약 파문과 군 제대 후 복귀하는 드라마라는 내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외적으로도 드라마 표절 논란과 여주인공이던 티아라 은정의 하차 건으로 시끌시끌한 가운데 촬영했다. '아내의 유혹'을 쓴 김순옥 작가 작품 특유의 막장 드라마 논란도 여전했다.

이에 대해 "어려운 질문"이라고 난감해한 그는 이내 "촬영 중에 만난 나이 지긋한 드라마 팬분들이 내 손을 꼭 잡고 잘 봤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경험을 하면서 연기 욕심이 늘었다고 털어놨다. "이런 일들을 겪은 만큼 관심 가는 것들이 많이 생겼고 공감가는 시나리오도 많아졌죠. 그러다 연기는 여전히 어려워요. 한고비를 넘기도 또 산이 나타나니까요. 죽을 때까지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는 건 곤혹이지만 한편으론 설레는 일이기도 하죠."

◆ 모델시절보다 몸무게 13kg 늘기

연기뿐 아니라 밴드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 군 복무 시절 지인들과 주지훈 밴드를 결성, 입대 전부터 보컬과 기타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꼭 하고 싶은 일에는 연애도 빠지지 않는다. 주지훈은 "인생은 사랑"이라면서 연애관을 들려줬다.

"연애해야죠. 그렇지만 예전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건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잘 돌아다니는 편이지만,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땐 상대가 원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못하죠.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대에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한 게 죽을 때까지 후회될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의 계획은 소소한 것들이다. 종영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느라 3번밖에 쉬지 못했다는 그는 기타 배우고 노래 만들기, 영화와 책 보기, 운동하기 등의 계획을 줄줄이 늘어놨다. 그리고 이내 "술 때문인지 모델 시절보다 몸무게가 13kg이 늘었다. 연말에 술독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면서 멋쩍게 웃었다.

/최진혁 기자 jak3427@metroseoul.co.kr

사진/최종수(라운드테이블) 디자인/김지연

CJ E&M

특별한 연말을 준비하고 계신 당신이 꼭 봐야 할 단 하루의 공연!

2013 HOT & NEW MUSICAL FESTIVAL

2013 핫앤뉴 뮤지컬 페스티벌

2013 HOT & NEW MUSICAL LINE-UP

HOT & NEW MUSICAL STARS

• 본 공연은 120분 간 진행되며, 3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합니다 •

깊어가는 겨울, 주옥 같은 뮤지컬의 감동을
이 모든 배우들이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감동을 함께 하세요!

2012.12.12 (WED) 8PM | 올림픽공원 SK 핸드볼경기장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단체문의] 02)371-6392 facebook 에서 CJ E&M Musical 을 검색해보세요.

소녀시대 / 보이프렌드

日인기 대단해요, K-팝 그룹 삼총사

소녀시대·FT아일랜드·보이프렌드 새 앨범 '오리콘차트 톱3' 합작

일본 NHK '홍백가합전'에는 제외됐지만 오리콘차트에서 K-팝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소녀시대·FT아일랜드·보이프렌드 등 세 팀의 K-팝 그룹이 28일 일본에서 동시에 새 앨범을 내고 오리콘 톱 3를 합작했다. 소녀시대는 데뷔 이후 줄곧 정상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고, 보이프렌드는 신인으로는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댄스 음악뿐 아니라 록 밴드로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FT아일랜드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소녀시대는 두 번째 정규앨범 '걸스 제너레이션2 걸스&피스'로 앨범 차트 2위에 올랐다. 초강세를 보인 일본의 국민 밴드인 미스터 칠드런에 선두 자리를 내줬지만 소녀시대는 하루 4만6031장을 판매하며 선전했다.

소녀시대는 한 주 전 새 싱글 '플래쉬 파워'를 발표하고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각종 방송에 출연해 한층 성숙한 여성미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FT아일랜드는 새 싱글 '플리스 타'로 싱글차트 2위를 차지했다. 하루 판매량은 1만9400장이다. 이번 싱글에는 이재진이 작곡한 '폴링 포 유', 최종훈이 작곡한 '뷰티풀 월드' 등 멤버들의 자작곡이 포함돼 있어 음악적으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타이틀곡 '플리스 타'는 일본 TV의 심야 음악 방송인 '온유등'과 개그 버라이어티쇼 '붓든다'의 11월 엔딩 테마곡으로 사용돼 음반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일본에 진출한 막내 아이돌 그룹인 보이프렌드는 싱글 '너와 댄스 댄스 댄스/마이 레이디~겨울연인'을 하루 동안 1만6721장 팔며 싱글차트 3위에 올랐다. 보이프렌드는 27일 앨범 발매 기념 행사에서 1000명의 팬을 모았고, 다음달 22~24일에는 도쿄돔 시티홀에서 단독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소유진 내년 1월 결혼 상대는 요식업 대표

탤런트 소유진(31)이 15살 연상의 요식업체 대표 백종원(46)씨와 내년 1월 19일 결혼한다.

소유진의 소속사 이서이브릿지콘텐츠는 두 사람이 얼마 전 양가 상견례를 갖고 결혼 날짜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요식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백씨는 1994년 외식 사업을 시작한 이후 18년 동안 19개 브랜드, 300개에 이르는 점포를 거느리고 있다. 자신의 사업 노하우를 담은 서적을 잇달아 출간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소유진이 15살 연상과 결혼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그는 지난해 5월 tvN '택시'에 출연해 "부모님의 나이 차가 30살이다"라고 공개한 바 있다.

소속사 역시 "예비 신랑과 나이 차가 많이 나지만 소유진은 백 대표의 따뜻하고 자상한 마음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싸이의 뒷심

빌보드 5위… 두 계단 상승

싸이가 빌보드 차트에서 역주행을 시작했다.

빌보드 매거진인 빌보드 비즈가 29일 발표한 '핫100' 차트에서 지난주 7위를 기록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두 계단 상승한 5위를 차지했다. 7주 연속 2위를 하다 2주 전 5위, 지난주 7위로 밀어지며 하락세가 역력했지만 이례적으로 다시 순위가 상승하는 놀라운 뒷심을 보이고 있다.

싸이는 최근 마돈나의 뉴욕 콘서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미국 NBC 인기 토크쇼인 '제이레노의 투나잇 쇼' 등에 모습을 보이며 화제 몰이를 계속하고 있어 이 같은 상승세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 아이튠즈 주간 싱글차트에서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프로모션에 들어간 싸이는 28일 태국 방콕에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85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열린 '엑스트라 라이브 페스티벌'에 참석해 '강남스타일'을 열창했다.

행사장에서 진행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싸이는 말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싶은 유명 인사로 톰 크루즈를 꼽아 화제를 모았다. 톰 크루즈는 9월 트위터에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고 주소를 링크하는 등 싸이에게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유순호기자

한 뿌리씩 4주 먹고 당뇨·고혈압 고쳤어요

▲ 삼채 또는 쥬잇으로 불리우는 약초 삼미채를 먹고 당뇨를 고친 생방송 오늘아침 방송

MBC KBS 생로병사의 비밀 SBS 조선일보 국민일보 YTN

삼미채로 당뇨,고혈압 사라져! 완치사례 언론 집중!

삼미채 매일 먹고 25년 당뇨·고혈압, 폐암 3기 완치!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 문의쇄도

마늘 6배의 풍부한 유황 삼미채 달인 물로 당뇨 고쳐

유황이 마늘의 6배, 사포닌이 인삼의 60배나 함유한 삼미채의 강력한 세포의 재생력 효과 덕분에 25년 간의 당뇨, 고혈압에서 벗어난 이가 있어 화제다.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당뇨, 고혈압을 삼미채로 물리쳤다는 정기술씨의 사연이 방송되면서 더욱 주목되었다. 정기술씨는 어머니가 30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다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유전으로 당뇨와 함께 합병증으로 고혈압으로 알게 되었다. 당뇨에 좋다는 온갖 방법과 음식을 먹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삼미채를 매일 달여 물처럼 마시고 당뇨, 고혈압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되찾았다. 방송 중 실제로 병원에 가서 혈당을 체크해보니 혈당이 122로 정말 낫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검진 시 삼미채 덕분에 식후 혈당이 150내외로 유지되고 있어서 건강을 되찾은 것에 대해 보는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남편 살린 보물 약초! 삼미채 매일 먹고 폐암 완치!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는 삼미채를 먹고 폐암 3기를 이겨낸 이종열씨의 사연이 방송되어 화제를 불러왔다. 그는 꾸준히 삼미채 달인 물, 삼미채로 만든 음식을 삼시세끼 챙겨먹은 결과 놀랍게도 폐암 완치 진단을 받았다. 완치된 지금도 삼미채 달인 물과 직접 만든 삼미채환을 하루에 3번씩 30알씩 챙겨먹으며 건강을 유지, 밭에 나가 직접 농사를 지을 만큼 튼튼한 체력을 되찾았다.

죽은 세포 살리는 강력 재생력 삼미채 한 뿌리면 혈당 내려

▲ 췌장세포 생존률 비교표

삼미채가 당뇨약보다 회복력 빨라

천연인슐린 역할로 당뇨잡아

삼미채의 주성분인 유황은 인슐린 호르몬 분비의 필수성분으로 당뇨병 억제를 도와주고 인슐린 분비 저하를 막는다. 뿌리를 달여 마시면 혈당을 내려주고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 혈전을 분해하여 췌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 당뇨병을 막아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톨부타미드 역시 삼미채의 유황화합물로 만들어진다. 때문에 삼미채를 복용하면 인슐린 분비를 돕는 약물보다 더 높은 세포 생존율로 당뇨억제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특히 삼미채 달인 물을 먹었을 경우 85.7%로 그 효과가 가장 높아 당뇨약보다 높은 회복력을 보였다. 당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뇨에 뛰어난 작용을 하는 삼미채를 복용하면 좋다.

암, 면역력, 정력회복에 탁월!

삼미채의 주요성분인 유황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다량의 생체원소 중에서 8번째로 중요한 물질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해며 죽어가는 세포를 재생시키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항암식품으로 잘 알려진 마늘보다 무려 유황성분이 6배나 많이 유해물질인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며 뛰어난 항암효과를 보인다. 또한 염증제거 및 살균작용으로 세균감염을 방지하고 생체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삼미채의 유황은 예로부터 양기를 회복시켜주어 회춘의 묘약이라고 전해져 왔을 만큼 공해독을 해독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공해독으로 인해 손상된 정자의 세포 재생을 도와 정력을 회복, 조루증,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적이다.

10일간 무료로 드셔보세요

"10일이면 당뇨·혈압 걱정 없어지네"

강력한 세포재생력을 지닌 삼미채의 기운!
무료로 체험해보세요! 불만족시 10일 이내 100% 환불해드립니다!

10일 무료체험!
100% 환불 보장!
후불제 실시!

무료체험 신청 **1599-2552**

죽음으로 내몬 당뇨, 삼미채 덕분에 살았어요

어떠한 약보다도 상미채 한뿌리에 느껴지는 건강에 그저 놀라울 따름!

당뇨 "당뇨로 죽을 뻔했던 삶 삼미채로 제 2의 인생을!"

63세, 인천 계양구 박○○씨

당뇨때문에 합병증이 생겨 뇌경색으로 쓰러져 1년 전 수술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뇨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해서 마나님이 삼미채를 챙겨주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치솟던 혈당과 혈압이 정상수치로 돌아와 합병증 증세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죽을뻔 했던 삶 저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암 "사형선고 같던 위암 삼미채가 제 은인입니다!"

52세, 경북 경주시 김○○씨

4년 전 사형선고와도 같은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생존확률이 25%밖에 안된다고 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않았고, 식이요법에 매달려 암에 좋다는 삼미채 음식과 달인 물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몸은 날로 좋아졌고, 지금은 기적같은 위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미채가 정말 제 은인입니다.

당뇨 "삼미채 달여서 마셨더니 혈당이 저절로 내려갔어요!"

50세, 경기도 일통시 한○○씨

17년 전 둘째 가졌을 때 임신성 당뇨에 걸려 혈당 관리했는데, 출산 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뇨가 다시 재발했어요. 삼미채가 당뇨에 좋다는 방송을 보게 되어 구매해서 뿌리를 달여서 물 대신 마셨습니다. 삼미채만 먹었을 뿐인데 혈당이 저절로 조절 되니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고혈압 "삼미채로 차린 밥상으로 높았던 혈압 정상수치로!"

64세, 서울 서대문구 윤○○씨

고혈압때문에 혀앤해지는 체기 인쓰러졌나봐요. 딸아이가 고혈압에 좋다는 소릴 어디서 듣고왔는지 삼미채무침 달인 물 부침개 등 날마다 삼미채 요리를 해줬어요. 정말 놀랍게도 삼미채가 효과가 있더라구요. 검진일이 되어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정상수치로 돌아왔더군요. 딸아이와 삼미채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삼미채, 그것이 알고싶다!

Q. 정말 항암효과가 있는건가요?

A. 삼미채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유황이 마늘의 6배, 사포닌이 인삼의 60배나 함유하여 강력한 항암효과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복용 결과 폐암을 완치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Q. 먹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나요?

A. 삼미채 효능은 사람의 체질마다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꾸준히 복용하시면 눈에 띄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약물보다 더 높은 세포 생존율을 보인다는 것이 각종 연구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Q. 조리시 영양이 파괴되지 않나요?

A. 볶이거나 데치거나 다른 양념과 함께 먹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강력한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뿌리채 달여 물처럼 매일 꾸준히 마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삼미채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삼미채 한 뿌리면 암·당뇨·고혈압 걱정이 없어지네!

10일무료체험 신청 **1599-2552**

엠카운트다운 TOP 10 순위

Mnet
M COUNT DOWN
11월 5주

순위	가수	곡	변동
1위	이승기	되돌리다	NEW
2	에일리	보여줄게	—
3	이하이	허수아비	NEW
4	주니엘	나쁜 사람	NEW
5	노을	하지 못한 말	▼
6	김성규	60초	NEW
7	손담비	눈물이 주르륵	▲
8	김종국	남자가 다 그렇지 뭐	▲
9	B1A4	걸어 본다	▼
10	현아	Ice cream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생방송 MnetMcountdown MnetMAMA

팀 버튼 '미술'로 만나다

작품전 앞두고 내한

할리우드 유명 감독인 팀 버튼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미술 작품전 '팀 버튼전'을 하루 앞두고 관람객과 만나는 사전 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전시회는 영화 '가위손' '배트맨'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을 연출한 팀 버튼 감독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한 자리다. 버튼 감독이 어린 시절에 그린 습작부터 회화·데생·사진·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만든 캐릭터 모형 등 8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 전시회는 2009년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으로 꼽히는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첫 선을 보여 80만여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파블로 피카소전'(1980)과 '앙리 마티스전'(1992)에 이어 이 미술관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관람객 동원으로 기록됐다.

오주 멜버른·캐나다 토론토·미국 LA·프랑스 파리에서 전시회가 이어졌고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팀 버튼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창작한 신작을 추가로 들여왔다.

공동 주최사인 현대카드는 "영화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상상력의 세계를 펼쳐온 팀 버튼 감독의 새로운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26년' 개봉첫날 예매율 1위

영화 '26년'이 개봉 첫날 예매율 1위에 등극했다.

2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6년'은 이날 오전 예매율 26.4%를 기록하며 지난주 1위였던 '늑대소년'을 제쳤다. 같은 날 개봉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가디언즈'가 16.7%로 뒤를 이었다.

'26년'은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과 연관된 조직폭력배, 국가대표 사격선수, 현직 경찰, 대기업 총수, 사설 경호업체 실장이 26년 후 바로 그날, 학살의 주범인 '그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는 액션 복수극이다.

/김민준기자 gokim@

이병헌, 아시아 최고배우

'올해의 스타상' 수상…한국인으론 비 이어 두번째

배우 이병헌이 올해 아시아 최고 스타 배우로 등극했다.

그는 다음달 13일 홍콩에서 열릴 영화 전문 전시회인 '2012 씨네아시아 어워드'에서 '올해의 스타상'을 수상한다. 이병헌 측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 전문 행사에서 '올해의 스타상' 수상 소식을 듣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올해의 스타상'은 최근 3년간 중국 여배우 리빙빙(2011)·장쯔이(2010)·저우쉰(2009) 등이 수상해 중화권 스타들이 강세를 보였다. 2007년에는 비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수상한 바 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로 1200만 관객을 동원했고, 할리우드 영화 '지 아이 조2' 개봉 및 '레드2' 촬영 등으로 한국과 할리우드를 오가며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이병헌은 이번 수상으로 아시아 최고 스타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

씨네아시아는 매년 12월 홍콩에서 열리며 아시아 영화 산업 전문가들과 영화 배급·극장 관계자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행사다. 매년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씨네유럽', 11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쇼이스트'와 함께 대표적인 국제 영화 전문 전시회로 꼽힌다.

행사를 주최하는 프로메테우스 글로벌 미디어는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전문 잡지인 빌보드지와 영화 전문 잡지 할리우드 리포터의 모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올해 씨네아시아는 다음달 11~13일 홍콩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이병헌은 시상식 참석 및 '지 아이 조2' 프로모션을 현지에서 병행한다.

/홍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포스트 아이유' 주니엘 올해 신인 가수상 영예

가수 주니엘이 올해 첫 신인상을 품에 안았다.

주니엘은 28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19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신인 가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유독 거물급 여자 신인 가수들이 많이 등장했고, 신예 아이돌 그룹이 쏟아진 가운데 주니엘은 데뷔 5개월 만에 올해 최고 신인으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주니엘은 "신인상을 수상하게 돼 정말 기쁘고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좋은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순한 외모와 수준급 노래 실력, 기타 연주 실력을 갖춘 그는 데뷔 전부터 '포스트 아이유'로 주목받았다. 일본에서 먼저 데뷔했으며 일본에서 출시한 4장의 앨범은 모두 자작곡으로 채웠다. 현재 미발표한 자작곡만 20여 곡에 달한다.

최근 발표한 두 번째 미니 음반 '폴인러브'에도 자작곡 4곡을 수록했으며, 이 중 3곡은 16세 때 완성한 곡이다.

/유순호기자

YES24.COM 예매순위

순위	영화	예매율
1	26년	30.52%
2	늑대소년	10%
3	가디언즈	8.02%
4	아워 이디엇 브라더	6.98%
5	내가 살인범이다	5.93%

자료제공: movie.yes24.com (11월 29일 14시 집계 기준)

한양언론인상·동문상 시상식 열려

제13회 한양언론인의 밤

한양언론인회(회장 홍성완 SBS 미디어넷 사장)는 28일 오후 7시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한양언론인의 밤에서 서동출 동아일보 부장, 김진홍 KBS 예능국 EP, 김정호 한국일보 광고국장 겸 수석논설위원, 이충환 전 OBS 경영기획실장, 고진갑 서울경제 편집국장, 서기천 일간스포츠 편집국장에게 한양언론인상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강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게 한양을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시상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 강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유기농 크리스마스케이크' 눈길

초록마을 예약판매

유기농식품 전문점 대표 브랜드 초록마을은 다음달 21일까지 2012년 유기농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 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초록마을의 유기농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 행사는 전국 340여 개 초록마을 매장 및 각 매장 전화 주문 신청 가능하며 다음달 3일부터는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의 탑부 온라인 쇼핑몰(www.chorok.com)에서도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예약한 케이크는 신청 매장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며, 수령일은 다음달 17~24일까지 총 8일간 예약자 본인이 직접 지참할 수 있다. 문의 070)7549-6262

태국정부 인증 맛집들 '타이셀렉트 페스티벌'

태국대사관은 다음달 1일 시작하는 타이셀렉트 위크 페스티벌을 맞아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중구 청계천 광통교에서 태국요리 시식 행사 및 사진 촬영 이벤트를 개최했다. 태국 요리사가 직접 만든 다양한 태국요리를 맛볼 수 있었던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디저트 요리인 사쿠 쌀 200접시가 무료 제공됐다. 타이셀렉트는 태국 정부가 인증한 전통 태국요리 레스토랑이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타이셀렉트 인증 레스토랑에서 타이셀렉트 메뉴를 주문하면 태국 여행 상품권, 타이셀렉트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피부탄력회복 T·T시스템 개발

SHEZA 신개념 화장품

SHEZA는 국내외 피부미용 회과 교수 및 미용 전문가들이 만든 피부미용 온라인 교육기관인 회사원(www.insaisp.com)이 5년간 수만 명의 피부 미용인 및 여성 회원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및 피부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해오면서 생긴 노하우 및 회원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의 Tightening Texture(T·T)를 개발 완료했다.

T·T 시스템은 탄력을 잃고 처져진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하이 엔리티 테크닉이다. 피부 복원력이 탁월한 고급 원료 드래곤블러드, 이데노신계의 피부 친화적인 강력한 보습제 소듐피씨에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이 주는 미백, 주름 개선과 갈락토미세스와 같은 기능의 효모-백금 발효 등 효모 구리 용효률로 유리한 피부관리를 경험할 수 있다.

녹색식생활 '초록입술' 약속!

aT 농림부 공동 캠페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환경·건강·배려의 녹색 식생활 실천과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녹색 식생활 초록 입술 캠페인을 벌인다.

녹색 식생활 초록 입술 캠페인은 하루 3끼 나를 위한 초록 약속 등 슬로건으로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생산자를 배려하는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aT는 다음달 2일 청계광장에서 녹색 식생활 실천 방법을 알리고 시민들이 참여해 녹색 식생활 실천을 서약하는 활서를 개최하며 3일부터 블로그(blog.naver.com/greentable114)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greentable114)을 통해 초록 입술 약속하기 릴레이 행사인 을 연다.

IBK 환율전망조사 결과 중기들 "하락우려 크다"

IBK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28일 164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실시한 환율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연내 환율 전망치는 1076.5원으로 전 수준(27일 종가 기준 1084.0원)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달 조사 대비 44.5원 내려간 수치로, 중소기업은 지금과 같은 원화 강세 현상이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의 환율 전망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이 전망한 평균 환율(1108원)보다 더 낮게 나타나 기업이 체감하는 환율 하락 우려는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What's New

메리리 리스트랑 업계 1위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www.outback.co.kr)가 연말을 맞아 업계 최초로 아웃백 디지털 금액권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웃백 디지털 금액권은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선물이 가능하고, 받는 사람 역시 핸드폰을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1만, 5만, 10만원권 총 3종으로 출시됐다.

연금복권 추첨이 다음달 5일 75회차부터 매주 수요일 jtbc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15분간 방송된다. 한국연합복권은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당첨금을 분할수령할 수 있는 연금복권 추첨방송을 방청객의 참여 확대와 스튜디오 사단장을 위해 기존 mbn에서 jtbc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인천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 원장 김형진은 28일 경기도 군포역에서 군포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과 함께 재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웅아오츠키(대표 이원희) 활서공장이 지난 2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운동 12배수 달성 인증을 받았다. 활서공장은 지난 1988년 4월 1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무사고를 기록했다. 지난 총 5046일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디사렛대학교(총장 신관규)는 지난 27일 칠학관에서 교내 외국인 학생 및 교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추수감사절 기념 환찬 회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타국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외국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해 환찬을 베푸는 자리로, 나사렛대 교직원 일동이 직접 성금을 모금했다.

What's New

페트노리키 코리아(대표 장 미누엘 스프리에)는 29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주민센터에서 황남대와 지자체 관계자, 페트노리키 코리아 주민단체 관계자 지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어 황남대를 방문, 정상철 총장과 대전지역 생태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상호 협약 를 출연기금도 전달했다.

교보문고(대표 허정도) 잠실점이 '도서 문화의 숲을 걷다' 북 페스티벌을 다음달 2일까지 잠실역 내 분수광장에서 연다. 2만개 주요 출판사 책을 정가 대비 최고 7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음달 1일 오후 5시에는 저자 허지원, 2일 오후 3시에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팬 사인회가 각각 잠실벽 트레비분수대 앞에서 열린다.

제주투어(대표이사 회 규남)이 26일부터 매일 운항하는 필리핀 세부 노선 신규 취항을 기념하여 내년 2월 말까지 이벤트를 한다. 스쿠버다이빙 장비에 한해 추가 10kg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세부 취항을 기념, 수준 행 개를 통해 제작된 '강남스타일' 패러디 UCC를 퍼다르면 추첨을 통해 인천~세부 왕복 항공권과 다이빙 체험권(2인) 등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개최한다.

CJ오쇼핑(www.CJmall.com)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2시간씩 방송한 패션 잭팟타임 이 10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패션 잭팟타임은 첫 방송에서 분당 약 20억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28일 방송에서는 자체 최고 매출인 26억원을 달성했다.

서강대학교는 내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가톨릭 예수회의 교육 이념에 따라 인간 공동체 내에서의 전인적 양성을 위해 청고생을 대상으로 만레사(Manresa) 캠프를 개최한다. 이 캠프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한 명의 리더 보다는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년들이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서강대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문의 02)705-4711

LG전자(www.lge.co.kr)가 고객의 목소리가 녹음된 로봇청소기 로보킹 듀얼아이 2.0을 고객 4명에게 선물했다. LG전자는 지난달 5~31일 가족을 위한 단 하나의 로보킹 선물 이벤트를 실시, SNS를 통해 가족 사랑 사연을 접수했고 그중 가장 감동적인 4개의 사연을 선정했다. 특히 몸이 불편한 남편에게 로보킹을 선물하고 싶다는 이순옥씨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노랑풍선여행사가 다음달 18일까지 게임 드래곤플라이트의 이벤트를 연다. 노랑풍선 게임 순위를 기반으로 상위 5명과 하위 10명에게 각각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 다음달 16일까지는 100만원 여행상품권과 니콘 J1카메라 등이 걸린 여행사진 공모전도 진행한다.

날씨

11/30 金 일출 07:27 일몰 17: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을 차단하기 위해선 우선 식사 일기를 적어봄으로써 객관적인 칼로리를 파악해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평상시 운동량이 적다면 가까운 거리는 걷는 등 방법으로 운동량을 늘리고 하루 1시간 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지수
소식지수
체질완기능지수
뇌활동기능지수
피부활성기능지수

‘말죽거리 신화’의 또다른 그늘

권기봉의 도시산책

‘말죽거리 신화’라는 말이 있었다. 지난 1960년대 말 ‘말죽거리’라고 불렸던 서울 양재역 주변을 중심으로 땅값이 폭등하면서 생겨난 용어다.

복부인이 탄생한 것도 바로 그때다. 그들은 주로 직접 나서서 투기에 가담하기 힘든 고위공무원이나 사업가들의 아내였다. 결국 1966년까지만 하더라도 평방미터당 200~400원 수준이던 말죽거리 땅값이 2년 만에 서른 배인 6000원대까지 오를 정도였다.

제3한강교라 불리던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투기가 과열 양상을 띤 것은 사실 서울시와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고 부추겼기 때문이다.

물론 애초부터 투기를 목적으로 강남을 개발한 건 아니었다. 1960년대 말 서울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1968년 김신조 등 북한 무장군인이 청와대 코앞까지 내려온 ‘1·21사태’가 도화선이 되었다. 행여 전쟁이 재발하면 피난을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서울 시민들의 두려움을 떨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강 너머의 강남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초기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주를 유도했다. 강북에는 더 이상 백화점이나 대형 학원, 유흥업소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주시키는 식이었다. 이파트에 사람들의 갈 모를 욕망이 결합하면서 말죽거리에서 시작한 개발 붐은 반포와 압구정 등으로 퍼져나가며 강남 일대가 아파트촌으로 변했다.

그러나 모두가 경제적인 부를 쌓은 것은 아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서울 양재동 212번지에는 ‘잔디마을’이라는 비닐하우스촌이 있었는데, 그곳에 전기가 들어온 건 지난 2002년, 상수도가 들어온 것도 2004년이 되어서였다. 바로 열흘 전인 지난 15일에는 1966년 빈민운동가 윤팔병씨가 재활용품 수거와 판매를 통해 노숙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든 대치동의 ‘넝마공동체’가 강남구청에 의해 기습 철거되기도 했다. 말죽거리 신화의 이면에 있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풍경이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2	9					
4				2				3
				5				9
3		6			2		4	
1	4						7	6
	7		5			3		8
7				8				
9				1				2
					4	8	5	

	6	9	2		4	3	7	
3	4						9	5
		6	8		2	5		
	1			4			3	
		4	9		1	2		
9	7						5	4
	2	1	5		9	8	6	

스도쿠 정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 8877
www.saju4000.com

인터넷 도박중독으로 망가져 45세까지는 고생길 각오해야

오의혁 남자 80년 1월 25일 양력 새벽 1시

Q 아버지께서 조합장 일을 하시다가 반대파 들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십니다. 난생 처음 가난하게 살게 되었고 미친 친구놈이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벌어 번 모습을 보고 손을 대게 되었다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 사주를 여쭤봅니다.

A 경신금(庚辛金)이 들어와는 해에는 조용하던 집안이 풀려 뒤집어를 일이 생기고 어찌 굴렀던 형제들이 네 한 그릇을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좀 나아질 기미가 있을까요? 어느 분이든 욕심을 갖고 뛰어들어 쟁취하는 사주가 없으며 1번면 빨로 반아들이지 해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하는 45세까지 재물 기운이 오지 않는 와 평지(絶地)로 들어가 있으므로 고생길은 좀 더 이어집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어찌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이런 하고 남에게 지적당하기 싫어하는 기질이 있어 뚜렷한 직업도 없으니 자신을 자제하면 운세는 38세 지나면서 운구를 많이 좋은 쪽으로 전환됩니다.

마흔인데 준비안돼 미래 불안 부동산 한우물 파면 명운 활짝

건강두술연 남자 74년 1월 5일 음력 저녁 9시

Q 저는 지금 계약직으로 전기 시설 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급여가 적은 편이고 밤직 근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에게 결혼운은 없는지요. 나이 40을 바라보면서 준비가 안 되어 미래에 대해 불안감이 듭니다. 선생님의 귀중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A 순박하고 겸손하여 남의 말을 잘 믿는데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숙살지기(肅殺之氣)로 끝까지 한 번 가도 하겠군요. '해 뜰 무렵의 땅'과 같은 형상으로 틀틀한 기운이 강렬고 가족의 정이 없어 해마로 비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평생 타인의 조력이나 도움이 안 되어 인복이 없는 편인데 그러다 실망이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조상님 덕인 천을귀인(天乙貴人)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기회가 왔으므로 40대 중반 이후부터 기이하게 발복하게 됩니다. 전기 시설과 관련하여 자격증을 획득하여 삶을 개척하는데 재산이 되도록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여 돈을 모으고 늘기 위해 노력하면 계획대로 이루어지며 44세에 좋은이 생사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30일(음 10월 17일) 김희수 인생상담 02-577-0541

쥐 48년생 남을 도울 수 있어 좋겠다. 60년생 결국 실리에 돌발 행동은 금물~ 72년생 공들인 일은 당분한 결여 선을 한다. 84년생 정보 너무 믿으면 낭패 볼 수도.

소 49년생 줄리한 살림선 때를 기다려라. 61년생 괴롭혔던 마음의 짐은 벗는다. 73년생 성급한 선격은 문제기 되니 충고를 것. 85년생 행복과 흡사한 동전의 금전과 같다.

호랑이 50년생 소망한 일들은 성사된다. 62년생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진퇴양난~ 74년생 추진 중인 일은 좀 무리가 있다. 86년생 속내 풀푸운 드러내면 쓴맛 맛을 수도.

토끼 51년생 거창한 말만 실속이 없는 물~ 63년생 묵묵히 도라 지키면 어려움은 좋다. 75년생 관재수가 예상되니 싸움은 금물~ 87년생 능력를 과시하면 되레 청산당한다.

용 52년생 동쪽으로 가면 길운이 있다. 64년생 일이 꼬이면 뒤로 물러서라. 76년생 근심은 버리면 저절로 사라진다. 88년생 아무리 급해도 대낮에 콩밭을 볼 수 없는 법~

뱀 53년생 집안에 돈이 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라. 65년생 측근이 뜻밖의 선물한다. 77년생 이미지 관리에 신경 써라. 89년생 강의나 강연을 들으면 큰 소득이 있다.

말 42년생 밖으로 나가면 하루가 즐겁다. 54년생 쉬는 일고 서같을 적극 변화라. 66년생 마음이 두었던 일은 시작하면 좋다. 78년생 욕심이 나도 참어 쉬자면 그만두라.

양 43년생 상한 음식 먹지 않도록 신경 써라. 55년생 하늘을 보면 뜻을 될 수 있는 운세다. 67년생 이웃사람에 도움 요청할 일이 생길 수도. 79년생 지성이면 감천이다.

원숭이 44년생 마음을 비우면 편안하다. 56년생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일어들어라. 68년생 큰일을 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는 즐거파~ 80년생 귀한 틈나 이심찬 계획 세운다.

닭 45년생 남과 어울리도록 노력을 것. 57년생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 69년생 눈앞 이익에 구라수를 두지 마라. 81년생 축하받을 경사기 생겨 즐거워진다.

개 46년생 환자는 병세가 많이 호전된다. 58년생 돈 때문에 소신 굽히지 않도록 신경 써라. 70년생 꼬였던 일은 잔해위 복된다. 82년생 대접받으려면 자신을 사랑하라.

돼지 47년생 가족의 의견에 귀 기울이라. 59년생 고생한 사람은 허리 펼 일이 생긴다. 71년생 정보를 편 화폰택이 효과 만점~ 83년생 노력한 만큼 결과를 생과 거둔다.

'합창' '백조의 호수'…눈·귀 즐겁다

연말 가볼 만한 무대 3 클래식·발레·오페라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클래식·발레·오페라 무대가 펼쳐진다

◆ 합창 연말 단골 레퍼토리

연말 클래식 단골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다. 서울시향은 정명훈 예술감독의 지휘로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합창'을 연주한다. 소프라노 캐슬린 김,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강요셉, 바리톤 사무엘 윤, 국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등이 함께한다.

KBS교향악단도 1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무대를 펼치고, 코리안심포니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이윤국의 지휘 아래 원전 스타일로 재해석한 '합창' 교향곡을 들려준다.

국립합창단은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오라토리오 '크리스투스'를 공연한다. 이상훈 예술감독의 지휘로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춘다. 소프라노 오은경,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김재형, 베이스 박종민 등이 독창자로 출연한다.

서울시합창단은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펼친다. 크리스마스 캐럴 명곡 '더 메니 무즈 오브 크리스마스'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180여 명의 시민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13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함께 부르는 메시아'를 연다.

서울시향은 또 6~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모차르트의 미완성 유작인 '레퀴엠'을 연주한다.

소년 합창단의 공연도 잇달아 열린다. 체코에서 온 소년합창단 보니푸에리는 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를 공연을 시작으로 용인, 안양 등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연다.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다양한 레퍼토리로 크리스마스 공연을 펼친다. 그리시아스 합창단은 6~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캐럴에 오페라의 뮤지컬 형식을 더한 공연을 연다.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14~15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뮤지컬 형식의 '왕자와 크리스마스'를 공연한다. 조선의 마지막 왕자가 궁궐 밖 친구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담은 것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려지는 재미와 우정, 감동이 담겨 있다.

◆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최고!

성탄절 전날 밤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속에서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과자의 나라를 여행하는 줄거리를 담은 '호두까기 인형'은 연말 발레 공연 대표작이다.

국립발레단은 18~25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을 33년간 이끌었던 안무가 유리 그리가로비치 버전을 선보인다.

유니버설발레단은 21~31일 능동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10명의 어린이가 '마더진저'의 커다란 치마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장면 등 화려한 줄거리를 선사한다.

7~8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서울발레시어터는 각 나라의 전통 춤을 선보이는 장면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 춤을 추는 장면을 추가한다.

차이콥스키 명곡에 맞춰 아름답게 무리 짓는 24마리 백조들의 군무로 유명한 '백조의 호수' 역시 가족과 함께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국립발레단은 7~12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지그프리트 왕자와 천재적인 악마 로스발트의 대결 구도를 강조해 극적인 무대를 꾸민다.

인형발레 러디베어씨어터 '백조의 호수'는 내년 1월 5일~2월 3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관객을 맞이한다.

◆ 라보엠 '배비장전' 도 볼만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은 가난하지만 현실에서의 꿈을 잃지 않는 젊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담은 것으로 유지컬 '렌트'의 원작으로 유명하다. 이즈음문화재단은 20~25일 서울 우리전시관에서 '위커합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 라보엠 in Paris'를 공연한다. 가로 54m의 대형 무대에 라보엠의 배경이 되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파리 시내가 재연돼 시선을 끈다. 마르첼로 모따렐리가 지휘를 맡고, 김동규(마르첼로 역)를 비롯해 마리아 피아 이오나타(미미 역), 발터 보린(로돌포 역)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8~16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 공연되는 국립창극단의 '배비장전'도 볼 만하다. 오은희 작가와 이병훈 연출가가 손잡고 만드는 21세기형 코미디 창극으로 배비장은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지식한 공무원상, 기녀 애랑은 당차고 현명한 현대적 여성으로 표현된다.

/김민준기자 mkum@metroseoul.co.kr

'호두까기 인형'

'할리의 크리스마스'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고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2 Do you speak English? 언어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문입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176. 헬렌의 영어는 어때요?
177. 그녀는 영어가 유창해요.
178. 당신은 얼마나 영어를 잘 하세요?
179. 저는 영어로 말할 때 가끔 실수를 해요.
180. 저는 발음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176 How is Helen's English?
177 She speaks English fluently
178 How well do you speak English?
179 Sometimes I make mistakes when I speak English.
180 I have a lot of trouble with pronunciation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176~180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Do you speak English fluently?
B Yes, I do but 가끔씩 I make mistakes.[179]

정답 sometimes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How well [do you / does he] speak English?

2 I have a lot of trouble with [pronunciation / grammar]

TOEIC Reading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report, sales of snacks have increased by ______ five percent.
(A) firmly (B) nearly
(C) strongly (D) completely

02 ______ the banking industry and the real estate market saw a rise in profits over the past quarter
(A) All (B) As
(C) Either (D) Both

01. 가장 최근 보고에 의하면 스낵류의 매출이 거의 5퍼센트 정도 증가했다

정답 (B) nearly

02 은행업계와 부동산 시장 모두 지난 분기에 수익 상승을 경험했다

정답 (D) Both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5 해결책 제안하기!

불만을 제기하는 음성 메시지

주문 · 배송 및 제품 고장 관련 표현

주문 오류, 배송 지연, 품절, 제품 고장 등에 대한 항의로, 환불 및 교환을 요청하는 메시지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 문제상황

receive a wrong product 잘못된 상품을 받다
be not a normal operation 정상 작동이 아니다
have a mechanical problem 기계상의 문제가 있다
be out of stock 품절되다
not receive a product 물건을 받지 않다
run slowly 작동이 느리다

• 해결책

exchange it for a new one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다
give you a full refund 전액을 환불해주다
deliver the product to your house 제품을 집으로 배달하다
send a staff member to one's house 직원을 집으로 보내다

2호골 폭격 구자철 '말춤' 췄다

시즌 2호골 아우크스부르크는 석패… 이청용 3호골 쾅진

구자철(23·아우크스부르크)과 이청용(24·볼턴)이 나란히 득점포를 날렸다.

구자철은 29일 열린 슈투트가르트와의 2012~2013 분데스리가 1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진 전반 44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그는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미드필더 안드레아스 오틀의 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네트 왼쪽 상단을 흔들었다.

지난 18일 프랑크푸르트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린 뒤 2경기 만에 골을 넣은 것으로 시즌 초반의 부진을 딛고 재활하는 데다 팀 내 아우크스부르크의 핵심 요원으로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구자철은 좌우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슈투트가르트의 골문을 위협했다. 프리킥과 코너킥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키커로 나섰다. 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는 구자철의 동점골을 지키지 못하고 1-2로 패했다.

이청용은 블랙번 로버스와의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16분 추가골을 넣었다. 지난달 11일 블랙풀과의 원정경기 이후 3경기 만으로 올 시즌 자신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다.

이청용 역시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활발하게 그라운드를 휘저었고, 후반 44분 수비수 마튜 밀스와 교체돼 벤치로 들어갔다.

구자철이 29일 슈투트가르트전에서 시즌 2호골을 넣은 뒤 싸이 '강남스타일'의 말춤을 선보이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TV캡처

볼턴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케빈 데이비스가 골을 터뜨린 뒤 이청용의 골을 더해 블랙번을 2-1로 따돌렸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류현진 예상 몸값 271억원"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입단 협상을 벌이는 류현진(25·사진)의 몸값을 2500만 달러(약 271억원) 정도로 예상하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미국 ESPN은 29일 인터넷판에서 다저스의 투수 영입 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저스가 다음달 4~7일 열리는 윈터미팅 기간에 잭 그레인키, 카일 로시 등 거물급 FA(자유계약선수) 영입에 나설 것"이라며 "류현진과의 협상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류현진이 5600만 달러의 계약을 터뜨린 다르빗슈 유(텍사스) 만큼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2500만 달러 정도라면 류현진을 잡기에는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아듀 박찬호! 은퇴 결정

19년 선수생활 마감… 오늘 기자회견 향후 계획 밝혀

코리안 특급 박찬호(39·한화 이글스)가 현역 선수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한화 구단은 29일 "박찬호가 오늘 오후 은퇴 의사를 구단에 전달해 왔다"면서 "구단은 박찬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호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은퇴와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통산 최다승(124승)을 기록한 박찬호가 마운드에 오르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박찬호는 1994년 LA 다저스에 입단해 텍사스(2002~2005년)-샌디에이고(2005~2006년)-뉴욕 메츠(2007년)-다저스(2008년)-필라델피아(2009년)-뉴욕 양키스-피츠버그(2010년)에서 뛰었다.

메이저리그에서 17시즌을 활약하는 동안 개인 통산 476경기에 등판해 124승98패 2세이브 방어율 4.36의 성적을 남겼다. 지난해에는 오릭스의 유니폼을 입고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 섰다.

올해 한화에서 23경기에 등판해 5승10패 방어율 5.06을 기록한 박찬호는 시즌 후 은퇴와 선수 생활 연장을 놓고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최종 결정은 은퇴였다.

/김민준기자

일본 전원 국내파로 WBC 출전

내년 3월 열릴 야구 국가대항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일본이 예상대로 자국 리그 소속 선수로만 대표팀을 꾸린다.

일본 언론은 야마모토 고지 감독을 비롯한 일본 WBC 대표팀 코치진이 28일 도쿄에서 회의를 한 뒤 33명의 대표 후보선수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야마모토 감독은 선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순수 국내파로만 팀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타격 기계 스즈키 이치로(뉴욕 양키스)를 비롯해 다르빗슈 유(텍사스), 이와쿠마 히사시(시애틀), 구로다 히로키(뉴욕 양키스), 와다 쓰요시, 우에하라 고지(텍사스), 가와사키 무네노리 등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선수 6명에게 WBC에 출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 모두 새 시즌 준비 등의 이유로 대표팀 합류를 거절해 결국 야마모토 감독은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만 팀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이진명기자

부상 턴 기성용 풀타임 행진

"영리했다" 평점 7 받아

기성용(23·스완지시티·사진)이 부상을 완전히 털고 풀타임 행진을 재개했다.

기성용은 29일 열린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언과의 2012~201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홈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를 맡았다. 지난 11일 사우샘프턴전에서 왼쪽 허벅지를 다친 뒤 3경기 만에 풀타임을 소화했다.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공수를 연결하고 상대 공격을 일선에서 미리 차단해 진용에 안정감을 주는 역할에 주력했다.

스완지시티는 혹인 리우를리지가 두 골을 터뜨리고 미구엘 미추가 한 골을 보태 웨스트 브로미치를 3-1로 완파했다. 경기 후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기성용에게 "영리했다"며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인 7점을 부여했다.

/김민준기자